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BION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내용이 중복되는 원문은 앞의 것만 수록함.
- ※ 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된 적 없는 사상은 제외함.
- ※ 선별 기준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음.

† 2014학년도 수능특강

‡ 원효의 일심 사상

이문(二門)의 안에 만 가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지럽지 아니 하며, 한량없는 뜻이 일심(一心)과 같아서 혼용되어 있으니, 이러 므로 펼침과 합함이 자재(自在)하며 세움과 깨뜨림이 결림이 없 어서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하여도 옹색하지 않으며, 세위도 언음이 없고 깨뜨려도 잃음이 없으니, 이것이 마명(馬鳴)의 뛰어난 술법이며 “기신론”의 총체이다. - 원효, 『기신론소』 (11쪽) -

‡ 유교의 자연관

“하늘이 못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이 마음에 항상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성을 좋아한다.”
- 『시경』 (20쪽) -

‡ 노자의 자연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도덕경』 (20쪽) -

‡ 석가모니가 강조한 중도(中道)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의 짓이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이 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앓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참된 앓과 바른 깨달 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 『전법륜경(轉法輪經)』 (25쪽) -

‡ 플라톤의 죽음관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 로부터 떠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죽은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순수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인식은 결코 획득될 수 없는 것이든가, 아니면 죽은 후에나 획득될 수 있는 것이든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육체와 관계를 맺지 않고 육체의 본성에 물들지 않고, 신(神)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우리들 자신을 순수하게 간직해야만 우리는 완전한 인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육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순수해질 것이며, 우리들 자신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 오염되지 않은 모든 순수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 순수한 것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플라톤, 『파이돈』 (72쪽) -

‡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각의 사람이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궁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3쪽) -

‡ 하버마스의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하버마스는 현대 과학 기술의 업적과 성과는 이중의 결과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가리켜 ‘합리화의 변증법’이라고 규정한다. 핵에너지, 무기 기술, 우주 개발 능력, 인간 행태에 관한 생물학적 탐구, 정보 기술의 발전과 확산, 뉴 미디어의 등장 등은 현대의 합리화 과정에서 파생된 성과인데, 한편으로는 삶의 수준을 질적 으로나 양적으로 개선하고 풍요롭게 해 주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생활세계에 병리적 현상들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식과 자율성을 활성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이성의 권력이 상승되어 역설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의식이 타의식이 되고, 자율성이 의존성으로, 해방이 억압으로, 합리성이 비합리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 84쪽 -

‡ 기술에 대한 장자의 생각

자공이 초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일을 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깊은 우물에 들어가 항아리로 물을 퍼서는 밭에 주고 있었다. 수고에 비해 일은 더더 보였다. 보다 못한 자공이 말했다.

“노인장, 기계를 쓰면 하루에 백 이랑도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만들되 뒤는 무겁고 앞은 가볍게 합니다. 그러면 흐르듯이 물을 떠내는데 물이 콧물 넘치도록 빠릅니다. 그것을 물틀이라 하지요.”

그러자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내가 우리 선생님께 들은 얘이지만, 기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되고, 기계를 쓰는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계에 관한 마음 쓰임이 있게 됩니다. 기계에 관한 마음 쓰임이 가슴 속에 차 있으면 순백(純白)함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고, 순백함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정신과 성격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신과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도(道)가 깃들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공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고 몸을 굽힌 채 대답도 못하였다.

- 『장자』 천지편 (84쪽) -

‡ 이분법을 통한 정복 지향적 자연관

- 지식은 힘이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녀(자연)는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 베이컨
- 신체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분할될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나 자신을 고찰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도 구분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 데카르트 - 85쪽 -

‡ 칸트의 동물관

- 인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또한 다른 이성적 존재를 향한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 (중략) ...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반면에 이성적 존재는 인격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의 성질은 이미 목적 자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해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는 감정을 무디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을 경우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점차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고통이 없이) 죽여야 하며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사변을 위해서 행해질 뿐인,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물리적 실험은, 특히 그 결과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얻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마치 그들을 가정의 한 구성원인 듯이 생각하여) 그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에 속한다. 직접적인 의무는 항상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 칸트 (96쪽) -

‡ 싱어의 동물 해방론

-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sentience: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되는 까닭이다.
 -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interests)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기 위해서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어린이가 길가의 돌맹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맹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돌맹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밭에 채이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밭에 채인다면 그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 싱어 (96쪽) -

‡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윤리

-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그 존재의 쾌고 감수 능력이 아니라 도덕 행위자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손상받을 수 있는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중략) ...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들이 모두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일정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체는 그러한 경향을 통해서 종을 재생산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사건에 적응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 ① 그 실체는 도덕적 관심과 고려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 즉 도덕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② 모든 도덕 행위자들은 그 실체의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해야 할 명백한 의무를 갖는다.

생명 중심적 관점에 담긴 신념

- 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② 인간 종은 다른 모든 종과 함께 상호 의존 체계의 통합적 구성 요소이다.
- ③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④ 인간은 내재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 테일러 (97쪽) -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 이제까지의 모든 윤리는 단 하나의 전체에 의존해서 진화되어 왔다. 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것들로 된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중략) ... 대지 윤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
- 대지 윤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integrity), 안정성(stability), 아름다움(beauty)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 97쪽 -

‡ 정약용의 목민관의 자세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용에 있으며, 절용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연후에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임무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116쪽) -

-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거니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된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인 것이다. 절약이라는 것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며, 한계를 두어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하거니와, 법식이라는 것은 절용의 근본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法式)으로 삼아야 하며, 그 법식을 조금만 넘어도 이는 무절제한 씹씀이가 되는 것이다.
-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의 근원 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121쪽) -

-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인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 청렴한 관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의 산림천석(山林泉石)이 모두 맑은 빛이 미치기 때문이다.
- 청렴함은 천하에서의 '큰 장사[大賈(대고)]'이다. 그러므로 욕심이 큰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욕심내는 것에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 (중략) ...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 욕심이 크므로 염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그 욕심이 작으므로 탐리(貪吏)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능히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 145쪽 -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은 녹봉 말고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돌아가는 날에도 말 한 필만 가지고 검소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그 다음은 녹봉 외에 그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자기 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중세 때 이른바 청렴한 관리의 자세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이미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는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먼저 나쁜 예를 만들지 않는다. 향임이라는 지위를 팔지 않으며, 면제해 준 세금을 훔치지 않고 곡식의 대출과 회수로 농간을 부리지 않으며, 송사나 옥사를 팔아먹지 않고 조세를 더 내게 하여 나머지를 훔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악을 갖춘 사람들이 물결처럼 넘치고 있다. 최상이면 참으로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음의 것이라도 좋다. 가장 낮은 등급은 옛날 같으면 반드시 심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181쪽) -

‡ 칸트의 응보적 정의

모든 형벌에는 그 자체로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 정의가 형벌 개념의 본질이다. 정의에는 확실히 호의도 결합할 수 있지만, 형벌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그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형벌은 육체적인 해악이다. 이 해악은 '자연적인' 결과로서는 도덕적인 악과 연결된 것이 아니지만, 도덕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에 따른 결과로서는 반드시 결합된 것이어야만 한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120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가) 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사물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분배에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나)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살해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 가해와 피해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실이 균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중략)… 이것은 마치 한 선분이 불균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을 때, 큰 쪽에서 절반 이상의 것을 떼내어 작은 쪽에 붙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전체가 균등하게 나누어졌을 때, 즉 당사자들이 균등한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 몫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정적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시켜 주는 정의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21쪽) -

‡ 플라톤의 정의(正義)

올바름[正義]은 외적인 자기 일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의 수행, 즉 참된 자기 자신 그리고 참된 자신의 일과 관련된 것일세.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남의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혼의 각 부류가 서로 간에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 참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며 통솔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화목함으로써, 이들 세 부분을, 마치 영락없는 음계의 세 음정, 즉 최고음, 최저음 그리고 중간음처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네. 또한 혹시 이들 사이의 것들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라도 되면, 이들마저도 모두 함께 결합시켜서는, 여럿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인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으로 되네.

- 플라톤, 『국가』 (132쪽) -

‡ 롤스의 원초적 입장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나 원시 상태가 아니며,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되어진다. 그럼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 롤스, 『정의론』 (132쪽) -

‡ 맹자 · 순자의 직업관

•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소 또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이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한테서 먹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원칙인 것이요.

- 『맹자』

•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田師]가 될 수는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賈師]가 될 수는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器師]가 될 수는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상 세 가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중략)…[번역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용자가 임의로 중략 처리함.]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들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들을 사물대로 아울러 잘 이해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를 한결같이 추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해 참고하고 고증해야 한다.

- 『순자』 -

- 133쪽 -

‡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서구의 직업윤리

- 분명히 새로운 사실 하나는 세속적 직업에서의 의무 이행을 도덕적 자기 증명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내용으로 평가한 점이다. 이것 때문에 세속적인 일상적 노동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발생했고, 그러한 의미의 직업 개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다. 이 교리는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며,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 낭비적 향락에 반대해 왔고 소비, 특히 사치재 소비를 봉쇄해 버렸다. 반면에 이 금욕은 재화 획득을 전통주의적인 윤리의 장애에서 해방시키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으며, 이익 추구를 합법화시켰을뿐 아니라 직접 신의 뜻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익 추구에 대한 질곡을 뚫고 나왔다.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44쪽) -

‡ 플라톤의 절대적 도덕주의

- 좋은 리듬, 좋은 말씨, 조화로움, 우아함 등은 좋은 품성을 갖추게 하며 반면에 꼴사나움과 나쁜 리듬과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닮게 한다.
- 여보게, 글라우콘! 나는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 보다도 가장 가치가 높은 분야가 된다고 보네. 음악 교육이 지극히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테지. 말하자면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영혼을 힘차고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 음악은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의 정신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지만 나쁘게 교육받은 사람의 영혼은 우아하게 할 수 없겠지. 그래서 내면적 존재의 참다운 교육을 받은 인간은 자연이나 기술 가운데에서의 잘못이나 실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참된 취미로서 선을 찬양하고 즐길 수 있네. 그리고 음악을 영혼 속에 포함시키면 기쁨이 높아지고 선량해진다네. - 플라톤, 『국가』 (156쪽) -

‡ 유학의 예악 사상

- “군자는 모름지기 도(道)에 뜻을 두며, 덕(德)에 의거하고, 어진 데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닐어야 한다.”
- “시(詩)로써 감흥을 일으키고, 예(禮)로써 질서를 세우며, 악(樂)에 의해 인격을 완성한다.” - 공자, 『논어』 -
- “예와 악 두 가지는 잠시도 우리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 “악을 알 때 곧 예를 아는 데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다 알아서 몸에 체득한 자가 유덕자(君子)이며, 덕(德)이란 득(得)이다.”
- “예악의 도를 철저히 체득하여 이것으로 천하에 실시하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 『예기』 악기편 - 156쪽 -

‡ 엘리아데의 ‘성과 속’

삶 자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기에 종교라는 독특한 현상이 인간의 삶 안에서 묘사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삶 자체에 대한 서술 범주’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를 나무로’ 승인하면서도 그것이 ‘나무이되 나무이지 않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범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나무를 우리가 늘 겪는 나무, 곧 일상성의 범주에 드는 나무라고 한다면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에서만 드러나는 나무, 곧 비일상성의 범주에 드는 나무이다. 엘리아데는 전자를 ‘속(俗: profane)’의 범주로, 그리고 후자를 ‘성(聖: sacred)’의 범주로 나눈다. 인간의 삶이 드러나는 현상을, 그 표상이 어떤 것이든, 그 두 범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엘리아데 (157쪽) -

‡ 쾨어의 세계 윤리 구상

- 세계 윤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종교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 또 종교의 대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 진정한 의미의 일치란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의 자아비판이다. 즉,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 내재하는 경계는 처음부터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 사이에 내재하는 경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려 깊은 자는 진리와 거짓 사이의 경계는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정당하다. - 쾨어 (157쪽) -

‡ 맹자의 민본주의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덕이 어떠해야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정치를 해 나간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요?” “제가 호호이라는 신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께서 당 위에 앉아 계실 때 소를 몰고 아래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지요. 왕께서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물었더니 ‘소의 피를 내어 종 틈에 바르는 제의를 위해 끌고 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지요. 그러자 왕께서는 ‘내 그 소가 떨어져 죄 없이 사지(死地)에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며 놓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를 몰고 가던 자가 ‘그러면 종 틈에 바르는 제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찌 없앨 수 있겠느냐? 양으로 바꾸어라.’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면 좋은 왕 노릇을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중략)… 그런데 지금 왕의 은혜가 짐승에게까지 미치는데도 그 효과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새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지 않은 것이고, 수레의 뿔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편안해지지 않는 것도 왕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올바르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맹자』 양혜왕 상 (181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는 기부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 싱어(Singer, P.) (190쪽) -

† 2014학년도 수능완성

‡ 노장 사상

-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 가짐도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며,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한다. - 『도덕경』
- 옛날 바다 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후(魯侯)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九韶)의 음악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 버리고 말았다. - 『장자』 ‘지락(至樂)’ - 10쪽 -

‡ 같은 용어 다른 의미인 “성인”

- 군자의 도(道)야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말단적인 일과 근본이 되는 일을 두루 잘하는 사람은 성인뿐일 게다. - 『논어』 ‘자장’
- 미혹하고 어리석음에서 해탈하여 깨달음을 얻고[轉迷開悟], 범부(중생)적인 것을 고쳐서 성인(부처)이 된다[革凡成聖]. - “불교의 이상(理想)”
-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펼친다. - 『도덕경』 - 17쪽 -

‡ 유불도의 자연관

- (가)
 -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그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教]’이라고 한다. - 『중용』
 -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 『맹자』
- (나)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사람이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 내의 각각의 대상들은 단지 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상들을 서로서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각각의 대상은 서로 다른 대상이 된다. 한 티끌의 먼지 입자에도 무수히 많은 붓다들이 존재한다. - 『화엄경』

(다) 남해의 임금을 숙(儻)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忽)이라 하며, 중앙의 임금을 혼돈(渾沌)이라 하였다. 숙과 홀이 어느 날 혼돈의 땅에서 만났을 때 혼돈이 그들을 위하여 잘 대접하였다. 그래서 숙과 홀은 서로 상의하여 혼돈의 덕을 갚으려 했다.“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으니 뚫어 주도록 하자.” 하고 하루 한 구멍씩 뚫어 7일이 되니 혼돈은 죽고 말았다. - 『장자』 - 18쪽 -

‡ 맹자, 석가모니, 장자의 수양법

- (가) 측은지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수오지심도 누구에게나 있고, 사양지심도 누구에게나 있고, 시비지심도 누구에게나 있다. 측은지심은 인(仁)이요, 수오지심은 의(義)요, 사양지심은 예(禮)요, 시비지심은 지(智)이다. 이들 인의예지는 외부로부터 내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본래부터 있던 것들이다. 다만 탐색해 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나는 “인의예지는 구하면 얻고, 버려두면 잃는다.”고 말한 것이다. - “맹자”
- (나) 그대는 예전에 거문고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거문고 줄이 너무 조여서 팽팽하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느냐? 반대로 줄이 너무 느슨하게 풀어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느냐? 거문고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줄이 너무 조여지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고 적당히 알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과하게 정진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정진하지 않으면 마음이 게을러 지니, 때를 분별하고 정도에 맞아야만 바른 법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 - “잡아함경”
- (다)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대상을 인지할 뿐이지만 기는 텅 비어 모든 것을 수용하니 이렇게 텅 빈 기로서 사물을 대하면 그 빈 곳에 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도가 들어오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심재’라는 것이다. - “장자” (18쪽)

‡ 복제 인간에 대한 요나스의 견해

기존의 어떤 개체로부터 복제된 인간은 그의 실존적 기본권, 즉 모든 가능성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어떤 생명체의 복제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대신, 비로소 자기를 찾아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놀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단 한 번 이루어지든 수백 번 이루어지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하든 단 한 사람에게 중요하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한 개인의 실존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24쪽 -

‡ 사랑은 능동적으로 '주는 것'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 하는 것'이지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잠재된 능력의 최고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넘쳐흐르고 생동하는 것이므로 기쁨에 찬 나 자신을 체험하게 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 그것이 손실이어서가 아니라 준다는 행위 속에는 나의 생동감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 프롬 (33쪽) -

‡ 가족의 형성과 가족애의 기원(국가론 이해에 도움될 수도)

- 처음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그것을 지켜 나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정신이 개화된 강자였을 터이므로 약자들은 그들을 거처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모방하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중략)… 남편과 아내, 부친과 자식이 공통된 거처에 결합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자 새로운 감정이 발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친밀한 감정인 부부애와 부성애를 갖게 되었다. 어느 가족이라도 상호 간의 애착과 자유를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가족은 자연 상태에서보다 더욱 긴밀히 결합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활 양식과 다른 생활 양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것은 이때였다. 여성들은 집안에 묻혀 있게 되었으며 오두막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돌보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 남자들은 식구를 위해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 부모는 자식의 존재 원인이며 자식에 대한 양육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지배적인 권위를 갖게 마련이다. 이런 부모의 가부장적인 권위는 군주가 국민들에 대해 가지는 권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중략)…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반면, 자식들은 부모들로부터 자기들이 나왔다는 이유로 부모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가지는 친애는 선하고 우월한 존재에 대해 가지는 친애와 같다.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해 주었고, 그들의 존재와 양육의 원인이며, 그들에 대해 교육까지도 책임지기 때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42쪽)

‡ 칸트와 벤담의 형벌론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正義)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同種性)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끄적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누구든 자기 행동의 잘잘못에 해당하는 처벌을 당하고, 살인죄가 이러한 처벌을 추구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처벌에서의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흔히 형량이 것처럼 적게 되면 처벌의 전체적 역할이 팽개쳐지고 말기 때문이다. 처벌이 비효과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처벌은 몇몇 다른 규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필요량 이상의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은 각각 개개의 위법 행위에 맞도록 조정됨으로써 결국 해당 위법 행위가 지닌 폐해의 각 부분이 제각기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형벌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요나스의 책임 윤리

- 현대 기술은 새로운 윤리적 사유의 노력을 요구한다. 현대 기술은 새롭고도 특이한 경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1. 결과의 모호성
기술 권력의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사용의 문제는 마지막 결과에 대한 양적인 추측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그 해답을 우연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참으로 곤란한 문제는 기술이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가 아니라 - 선하고 극히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조차도 - 그 자체 안에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 행사는 기술적 행위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중략)… 지나침의 위험은 나쁨, 즉 해로움의 짝이 다름 아닌 좋음, 즉 이로운 것의 추구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상황 안에 항상 놓여 있다.
 2. 적용의 강제성
이런저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면 적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그것은 마침내 지속적인 욕구로 자리 잡게 된다. 영속적인 행위 안에서 고양된 인간 권력으로서의 기술은 이로써 더 이상 윤리적 중립성의 은신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소유와 행사라는 편리한 구분마저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만다.

3. 시·공간적 광역성

현대 기술과 그 작품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지른 행위는 다른 곳에 사는, 혹은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행사한다. 우리는 현재의 근시안적인 이익과 필요 때문에 - 이 필요의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냈다. - 미래의 삶을 저당 잡고 있다. 이렇게 혹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피한 것이 사실 일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후손들에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잡힌 저당을 갚을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먼 훗날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실천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한 윤리적 새로움이라는 사실이다.

4. 인간 중심주의의 파괴

기술이 시·공간적 가까움의 지평을 벗어남으로써 크게 확대된 인간의 권력은 급기야 기존의 윤리 체계가 누려 오던 인간 중심적 독점주의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전통 윤리학은 언제나 인간적 선의 장려, 타인의 권리 내지 타인에 대한 관심의 존중, 그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개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완화를 강조해 왔다. 인간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 자신,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물론 전통 윤리학의 규범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구속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전 생태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부당한 침해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훼손 가능성에 직면하여 자연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 즉 그들의 고유한 목적 자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 (후략) ...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58쪽)

동물 학대에 대한 칸트의 관점

본성상 인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로 동물이 있다. 도덕성의 측면에서 동물과는 어떤 관계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직접적인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 (중략) ... 하지만 동물에 대하여 잔인하게 행위하는 것이 이성의 법칙과 어긋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수단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만들고 또 동물들을 전혀 애정이 없이 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자신에게 잔인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칸트 (64쪽) -

싱어의 감정 중심주의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길 거부하는 자세를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인 논증은 있을 수 없다.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 - 대략적이거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 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또는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채고 감수 능력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령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65쪽 -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 우리가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선이 있듯이 다른 종들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듯이 다른 종들도 보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경향을 계발할 수 있다.
-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유기체에 비하여 장점과 가치 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 도덕적 권리의 또 다른 수정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동식물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이 수정된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 자연에 대한 생명 중심적 관점을 고려해 보자. 만일 그 주장이 확고하다면 합리적인 인격체들은 생명 중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신념 체계를 수용할 것이다. 그들은 따라서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할 것이고 야생 생명체들을 내재적 존엄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식물을 이해한다면 합리적인 인격체들은 그들을 도덕적 관심과 고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합리적 인격체들은 또한 그들 자신을 야생 생명체의 선이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도덕 원리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들 규범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도덕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품성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표현한다.

- 66쪽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 대지 윤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 물론 대지 윤리가 인간에게 이 자원들의 사용과 관리 혹은 변화를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존재할 권리,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생명체 모두가 생태계의 구성원이고, 생태계의 안정은 전체의 구성이 유지된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내 생각이 맞다면 그들 모두가 최소한 생존은 보장받아야 한다.

- 대지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흙, 식물, 동물을 순회하며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 대지에 대한 사랑, 존중, 찬탄의 태도를 갖지 않고, 또 그 가치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는 대지에 대한 윤리적 관계가 생겨날 수 없다.

- 66쪽 -

‡ 공자의 정명

자료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할 경우 선생님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그야 물론 이름을 바로 잡는 일[正名]이다.” “역시나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하필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는 정말 무식하구나. 군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법이다. 명(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 “논어” (80쪽)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살해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 가해와 피해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실이 균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그 악행을 당했건, 또 누가 해악을 끼치고 누가 그 해악을 당했건, 법은 다만 그 해악의 성격만을 문제 삼으면서 당사자들을 균등하게 대한다. 이런 종류의 옳지 않음은 불균등이므로 재판관은 이를 균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81쪽)

‡ 맹자의 선비 정신

물고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곰 발바닥 또한 내가 좋아하지만,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없다면 물고기보다는 곰 발바닥을 먹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로움 또한 내가 원하는 바지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 삶 또한 내가 원하는 바지만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바지만 죽기보다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삶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어찌 쓰지 않겠으며, 그가 죽음 이상으로 싫어하는 것이 없다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어찌 쓰지 않겠는가.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음에도 그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이며,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그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 마음은 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지만 현자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일 뿐이다.

- 『맹자』 (82쪽)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공정하거나 불균등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불균등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균등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균등이 있다. 그런데 옳지 않음이 불균등이므로, 옳음은 균등이다. 그런데 균등은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사람과 두 가지 사물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옳음은 적어도 네 가지 항으로 성립한다. …(중략)… 서로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명예와 돈, 공동 소유물과 같이 공동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계되는 분배 정의, 둘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바로잡는 시정적 정의(응보적 정의), 셋째, 교환 관계에서의 균등을 추구하는 교환 정의, 넷째, 공동체에서의 균등한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 정의가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들 사이에서 부와 명예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닌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 88쪽 -

‡ 맹자의 직업관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겠는가!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는 여러 장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모든 것을 반드시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천하 사람들을 모두 치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 원리이다.

- “맹자” (89쪽)

‡ 롤스의 원초적 입장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나타내는 제한 조건들을 신중히 따름으로써 그 당사자들의 사려를 모방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유사한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정의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반성적 평형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도덕감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도덕감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행위론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 롤스, “정의론” (90쪽)

‡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서구의 직업 윤리

-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기독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세계에 신의 영광을 각자의 몫만큼 증대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신은 기독교도의 사회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삶의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그 형성이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칼뱅 교도들의 사회적 노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노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 노동도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 이것 때문에 세속적인 일상의 노동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발생했고, 그러한 의미의 직업 개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직업 개념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중심 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교리는 도덕적 계율을 명령과 권고로 나누는 가톨릭적 태도를 거부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현세적 의무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곧 그의 직업이 된다. -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90쪽 -

‡ 맹자와 플라톤의 절대적 도덕주의

- 예의와 음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 놓으면 안 된다. 음악을 깊이 익혀서 그것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면 곧고 양순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 나온다. 곧고 양순한 마음이 생기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오래 지속되고, 편안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이 하늘과 같게 되고, 마음이 하늘과 같게 되면 신(神)과 통하게 된다. 하늘과 같으면 말하지 않아도 남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신과 통하게 되면 성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음악의 지극함에 이르러서 음악으로써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 “예기” ‘악기’
-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로 평화하게나. 우리의 화음에 이어지는 것은 리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일세. 우리는 복잡하고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무엇인지 보도록 해야만 하네. 이를 본 다음에 그런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사람의 노랫말에 운율과 선율이 따르도록 해야지, 노랫말이 운율과 선율에 따르도록 해서 안 되네. - 플라톤, “국가” (106쪽)

‡ 엘리아데의 종교관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顯現)하는,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성화(聖化)하고 또 그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는 생명이 성스러운 것에서 기원하며, 인간 존재는 절대적 실재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모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신들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고, 문화 영웅들이 그 창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신화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 인간은 성스러운 역사를 재현하고 신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신들 곁으로, 즉 실재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06쪽)

‡ 정약용의 애민(愛民) 6조

정약용의 애민 6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어른을 공경하라.
2.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라.
3. 진궁(振窮):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4. 애상(哀喪): 상을 애도하고 배려하라.
5. 관질(寬疾): 환자를 구호하라.
6. 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하라.

- 정약용, “목민심서”

‡ 맹자의 민본주의

맹자께서 말씀하셨다.“결(桀)과 주(紂)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음이다. 그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음이다. 천하를 얻는 것에 도(道)가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 백성을 얻는 것에 도(道)가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곧 백성을 얻을 것이다. 그 마음을 얻는데 도(道)가 있으니, 바라는 것을 그들을 위해 모아 주고, 싫어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백성이 인(仁)에 따르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고, 짐승이 들로 내달림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못으로 물고기를 몰아 주는 것은 수달피요, 숲으로 새를 몰아 주는 것은 새매요, 탕(湯)과 무왕(武王)에게로 백성을 몰아 주는 자는 결(桀)과 주(紂)이다. 이제 천하의 임금 가운데 인(仁)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제후가 다 그를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다 줄 것이니, 아무리 임금을 앉고자 해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 “맹자” ‘이루상’ (121쪽)

‡ 칸트의 영구 평화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1. 영구 평화를 위하여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스런 여러 국가의 연맹 조직을 토대로 해야 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국한되어야 한다.

- 129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풍족한 사회에서 그러하듯이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이 아니다. 1년 소득의 1퍼센트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밀레니엄 정상 회담의 기부 금액 목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부한다면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경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생각에 기초한 윤리를 가지기에는 아직 요원함을 잘 말해 준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130쪽)

† 2015학년도 수능특강

‡ 노장 사상

- 도(道)가 상실되자 덕(德)이 나오고, 덕이 상실되자 인(仁)이 나오고, 인이 상실되자 의(義)가 나오고, 의가 상실되자 예(禮)가 나온다. 무릇 예라는 것은 충(忠)과 신(信)이 회복해진 것으로서 혼란의 시작이다. - “노자”
-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채득해서 흔적이 없는 세계에서 노닐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말라. - “장자”
- 23쪽 -

‡ 효(孝)의 시작과 마지막 (유교 입장)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감히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서 도리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 “효경”

‡ “논어”에 나타난 효

-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어떤 이가 효성과 우애가 있으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한다. 효와 제라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 학이편
- 공자가 말씀하셨다. 제자가 들어와서는 효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 학이편
-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하신 일을 살피니, 삼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학이편
-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후에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자가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어야 함이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무엇을 이르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살아 계시면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
- 위정편
- 공자가 말씀하셨다. 오늘날 효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함을 말하나 개나 말을 보더라도 모두 그 어미에게 그럴 수 있으니, 공경함이 없으면 어찌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겠느냐? - 위정편
- 부모의 표정을 보고 알아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이 그 수고를 대신하고,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에게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어찌 효도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위정편 (47쪽)

‡ 석가모니의 죽음관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因)과 연(緣)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느냐?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도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식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구들이,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또한 내 것[我所]도 아니다.
거룩한 제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색을 싫어하고, 수·상·행·식을 싫어하게 되느니라.
싫어하면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해탈하여 해탈지견(解脫知見)이 생기나니,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 “아함경” (71쪽)

‡ 서(恕)의 윤리

자공이 물었다. “평생 신조로 삼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서(恕)이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즉 남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이다.” - “논어” ‘위령공’ (116쪽)

‡ 정약용의 청렴 사상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들은 늘 “이 일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 같이 믿고 뇌물을 혼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자마자 마구 떠벌려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삼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昌邑)의 수령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 근을 품고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라고 대답하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 정약용, “목민심서”

‡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

-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 롤스, “정의론”
-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 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서구 근대의 직업 윤리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험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험시된 것이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대시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쫓겨난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빈곤해지려는 것은 빈번히 논증되었듯이 병들려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한 바람은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31쪽)

‡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바쳐 수령을 섬기고, 또 수레와 말과 하인들을 내어 수령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며, 또는 기름과 피와 진액과 골수를 다 없애서 그 수령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수령을 위하여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령(공직자)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정약용, “원목” (143쪽)

‡ 도덕주의 vs 심미주의

-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인들을 찾아야만 하네. 그래서 마치 건강에 좋은 곳에서 거주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듯, 모든 것에서 덕(德)을 보게 되네. 이로 인해 아름다운 작품들에서 뭔가가 그들의 시각과 청각에 부딪쳐 오게 되어, 어릴 적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릴 걸세. …(중략)… 리듬과 선법은 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들며, 우아함을 대동함으로써 혼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네.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옳게 교육을 받는다면 우아한 사람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될 것일세.

- 플라톤, “국가”
- 작은 정직함도 위험할진데, 많은 정직함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네. 사실 진정한 비평가라면 미(美)의 원리에 헌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늘 정직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모든 시대와 모든 유평에서 미를 찾으려고 할 것이지, 절대로 정해진 관습에 따라 사고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한를 짓지 않을 것이야. …(중략)… 비평가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 그들을 서로 혼동할 때 다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지. …(중략)…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지.

- 와일드, “예술가로서의 비평가” (155쪽)

‡ 목민관의 청렴

-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이는 인생의 지극한 영광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178쪽)

‡ 2015학년도 수능완성

‡ 원효의 일심 사상

이 “열반경”은 여러 경전의 부분을 통괄하여 온갖 물들이 바다의 한 맛[一味]으로 돌아가듯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하며, 부처님의 뜻이 지극히 공정함을 열어서, 백가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해시켰다. 그리하여 쟁론으로 시끄럽고 시끄러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르지 않은[無二] 참다운 자리[實性]로 돌아가게 하고, 어둡고 어두운 긴 잠에서 깨어나 다함께 위대한 깨달음[大覺]의 궁극적 경지에 이르게 한다. ‘궁극적 경지의 깨달음[極果의 大覺]이라 함은 참다운 자리를 체득했으면서도 체득했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고, ‘참다운 자리의 다르지 않음’ 이라 함은 참됨과 허망함이 녹아 섞이어 하나인 것이다. 이미 ‘다르지 않음’이니 어찌 ‘하나’가 있을 것이며, 참됨과 허망함이 녹아 섞였으니 무엇을 ‘참됨’이라 하겠는가? 이러한 이치와 지혜가 모두 없어지고, 명칭과 뜻이 모두 끊어지니, 이것을 열반의 현묘한 뜻이라 한다. 다만 모든 부처님은 이 ‘열반의 현묘한 뜻’을 증득(證得)*하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 응하지 않은 데가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열반의 지극한 가르침’이라 한다. 현묘한 뜻이라 할 것조차 없으나 일찍이 고요하지도

아니했고, 지극한 가르침을 설했지만 일찍이 설한 것도 없으니, 이것을 이치[理]와 가르침[教]의 한 맛[一味]이라고 한다.

- 원효, “열반중요”

* 증득: 바른 지혜로써 진리를 깨달아 얻음
- 10쪽 -

‡ 장자의 수신 방법

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어렵고,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어버이를 잊기는 쉬워도 어버이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려우며, 천하를 두루 잊기는 쉽지만 천하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릇 효제(孝悌), 인의(仁義), 충신(忠信), 정렴(貞廉) 등은 힘써 실천해야만 드러나는 덕이기에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극히 귀한 사람은 벼슬도 마다하고, 지극히 부유한 사람은 재물도 마다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명예도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도(道)는 때에 따라 다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장자” ‘천운’ (17쪽)

‡ 프롬, 사랑의 기본 요소

만약 사랑의 제3구성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어쩌면 책임은 지배 또는 소유욕으로 쉽게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아니라 그 어원에 따른다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지각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존경이란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관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존경은 착취의 부재를 의미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며, 나에게 봉사해 줄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혹은 그녀와 하나인 것을 느끼며, 이 경우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이지 나의 사용의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프롬, “사랑의 기술” (40쪽)

‡ 동서양 사상가의 가족관

- 군자는 사물에 대해 그것을 아끼기는 하지만 인(仁)으로 대하지는 않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으로 대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서 백성들을 인으로 대하고, 백성들을 인으로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낀다. - “맹자” ‘진심 상’
- 내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어른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아이에게까지 이르게 한다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 “맹자” ‘양혜왕 상’
- 인간은 천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존재이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 주인과 노예 등 두 인간의 공동체가 가장 원초적이며, 이들이 합쳐져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마을이 구성되고, 마침내 여러 마을이 모여서 도시 국가를 형성한다. 가정은 소규모의 공동체이고 국가는 가정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가정은 가장이 일방적으로 지배하지만 국가는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42쪽 -

‡ 에피쿠로스, 플라톤의 죽음관

-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 “쾌락”
- 철인(哲人)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죽음의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동시에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곳으로 떠나려 할 즈음에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떨고 싫어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그리고 저 죽음의 세계에서만 지혜를 보람 있게 향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오히려 큰 환희 속에 저승으로 떠날 것이 아니겠는가? - 플라톤, “파이돈”

‡ 서구의 자연관

-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축은 인간이 활용하고 음식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은 음식과 의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재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 베이컨, “신기관”
- 57쪽 -

‡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

과학 연구의 자율성은 자유주의적 헌법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점점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성의 진보에 대한 경제적 약속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개인의 결정 공간에 대한 정치적 전망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가 증가함으로써 개인들의 사적 자율성도 촉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은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 갈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근본 관념과 아무런 강제 없이 결합할 수 있었다. …(중략)… 생물학적 연구와 유전 공학에 대한 법률적 간섭은 사회적 근(현)대성을 지배하는 자유의 경향을 막아보려는 무모한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인간 자연의 도덕화’가 의심스러운 재신성화(재종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략)…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R.)은 그와 같은 사정을 지금껏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조건에 대해서 유전 공학이 이끌어 낸 관점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우리는 진화를 포함하여 자연이 창조한 것과 우리가 이 자연이 준 유전자의 도움을 받아 세계에서 만들어 낸 것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것과 우리가 이 유산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책임 아래 산출해 낸 것의 경계를 긋는다. 우연과 자유로운 선택 사이의 이 결정적 경계야말로 우리 도덕의

지주다. …(중략)… 우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기획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경악해 한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우리의 가치 척도의 바탕에 놓여 있는 우연과 결정의 경계를 허물 것이기 때문이다.
-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중략)…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58쪽)

‡ 공자의 서(恕)

중궁이 공자에게 ‘인(仁)’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문을 나서서 사람을 만날 때에는 큰 손님을 만난 것처럼 하고,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나라에 대해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도 원한이 없다.”
- “논어” ‘안연’ (80쪽)

‡ 노직의 국가론

- 국가는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88쪽)

‡ 순자의 직업관

-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일은 싫어하고 이익만 좋아하게 되어 있다. 쉽고 편한 일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므로 일을 나누어 맡는 데 있어서 한계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일을 맡게 됨으로써 공적만 다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 예(禮)란 사람의 욕망을 기르고 만족시켜 주면서도 물질적 욕망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이 탕진되지 않도록 성인이 제정한 것이다.

- 순자, “순자” (89쪽)

‡ 칼뱅의 소명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주님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주님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 칼뱅 (90쪽)

‡ 엘리야데의 종교관

인간이 거룩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聖顯)이다. 종교의 역사란 다수의 성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초보적인 성현에서 최고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실재가, 우리의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에 마주치게 된다.
- 엘리야데, “성과 속” (105쪽)

‡ 목자의 비악론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다만 흙을 굽어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과 술을 뜯고 우와 생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하게 된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하게 된다.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천과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 “목자” ‘비악’ (106쪽)

‡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밀의 주장

1.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2. 오류가 있는 의견일지라도 일부는 진리를 포함할 수 있다.
3.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통념은 편견으로 인식된다.
4.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그 교리는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된다.

- 밀, “자유론” (112쪽)

‡ 맹자의 민본주의

좌우 측근이 모두 특정인을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믿어선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믿어선 안 됩니다. 백성들 모두가 어질다고 말하면 그때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현명함을 확인한 뒤에 등용하십시오. 좌우 측근이 모두 특정인을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때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불가함을 확인한 뒤에 버리십시오.
- “맹자” ‘양혜왕 하’ (122쪽)

‡ 싱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가령 오늘 아침 남자 아이 하나가 홍역으로 죽었어요. 우리 모두 병원에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 부모에게는 돈이 없었죠. 결국 그 아이는 앓다가 죽었습니다. 홍역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죽은 거죠.” 어느 가난한 사람이 들려 준 사례이다. 이런 일이 매일, 2만 7천 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죽는다. 더 많은 아이는 이 아이처럼, 홍역, 말라리아, 설사증, 폐렴 따위로 죽는다. 선진국에는 있지도 않은 질병이다. 설령 그런 병에 걸려도, 선진국이라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그런 질병에 취약한 까닭은 안심하고 마실 물이나 하수 정화 시설이 없고, 병에 걸렸을 때 부모에게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 기금과 옥스팜(Oxfam)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빈곤을 줄이려고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보급하려 애쓰고 있다. 덕분에 유아 사망자의 수는 줄고 있다. 더 많은 돈이 모이면 이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아마 신발 한 켤레를 사는 돈보다 조금 많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일에 쓰는 돈, 즉 음료수, 외식, 옷, 영화, 콘서트, 휴가 여행, 자동차, 집 꾸미기 등에 들이는 돈은 얼마인가? 그런 데 돈을 쓰면서 구호 단체에 기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은가?

- 싱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130쪽)

† 2016학년도 수능특강

‡ 메타 윤리학의 분류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메타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들에는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와 “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비(非)인지주의 등이 있다. 하지만 메타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9쪽 -

‡ 메타 윤리학의 분류

윤리 이론 또는 도덕 철학은 도덕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뜻한다. 그것은 ‘옳은’, ‘그른’, ‘허용 가능한’과 같은 윤리의 핵심 개념들을 분석한다. 또한 신, 이성 또는 행복하려는 욕구와 같이 도덕적 책무의 원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하며,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관한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한편 응용 윤리는 낙태, 사형, 안락사, 시민 불복종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룬다. 넓은 의미의 윤리학 연구는 이 분야 모두를 포괄하며 그것들을 중요한 방식으로 연결시킨다.

-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 : 옳고 그름의 발견” (10쪽)

‡ 유교의 수기안인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君子)에 대해 물었다. “공경스런 마음으로 자신을 닦으면 된다.”공자가 대답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자로가 다시 물었다. “자신을 닦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공자가 다시 대답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자로가 또 물었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순(堯舜) 임금도 어렵게 여겼다.”

- “논어”

‡ 노자의 윤리 사상

- 사람은 땅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고[人法地], 땅은 하늘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으며[地法天], 하늘은 도를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고[天法道], 도는 자연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는다[道法自然].
-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오래 설 수 없으며, 다리를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 나타내는 사람은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 “도덕경” (13쪽)

‡ 도가와 유교의 자연관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가르침이라고 한다.

- “중용장구”

‡ 장자의 인간관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세계에서 노닐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말라.

- “장자”

‡ 맹자의 사단 · 사덕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려는 것을 본다면 모두 깜짝 놀라서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해지려는 까닭도 아니며, 마을 사람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들으려 하는 것도 아니며, 나쁜 소문이 날까 봐 그것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 “맹자” (22쪽)

‡ 대승 불교의 수양 방법

- 마땅히 색(色, 물질)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미·촉·법(聲香味觸法, 소리·냄새·맛·감촉·말씀)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 “금강반야바라밀경”
- 비록 눈으로 보나 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귀로 들으나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으나 향취에 집착하지 않으며, 혀로 맛을 보나 맛에 집착하지 않는다. 몸이 있지만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모름지기 모양을 잊고 체(體)를 잊는다. 뜻은 비록 일에 임하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응하고 응하되 항상 고요하다.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23쪽)

‡ 칼 포퍼의 열린사회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고, 개인이 그 이성에 의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사회이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이 사회에서는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지도 모른다. 혹은 우리 모두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적 논의에 의해 우리는 진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세를 지켜 나가야 한다.
-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25쪽)

‡ 인류의 보편적 사상으로서의 효

군자의 효는 자신의 집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집 안에서의 효가 온 세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집 안에서의 아우 사랑이 온 세상의 형을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효경” (44쪽)

‡ ‘간언’에 대한 유교 입장

만일 부모가 바르지 않다면 자식은 공손한 태도로 간언(諫言)하여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의 실천은 부모의 뜻을 단순히 받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언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의 뜻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 언행으로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부모와 자식 간은 혈육의 정(情)이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부모님께 간언하더라도, 자식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며 부모의 안색과 조짐을 살펴 은밀하게 해야 한다.
- 45쪽 -

‡ 부부-존재의 근원 (유교 입장)

부부로부터 가족, 친인척이라는 혈연이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부부는 혈연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다.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리 아둔하여도 알 수 있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연결 고리도 없는 나와 네가 만나 왜 부부가 되었느냐는 성인(聖人)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부부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원리이고 현상이지만, ‘개별 부부’를 놓고 보면 왜 부부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아니, 영원히 설명될 수 없을 수도 있고, 설명되지 말아야 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부부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개별 부부’는 특수하고 구체적이 된다. 그 특수와 구체가 혈연을 구성한다. 개별 부부의 특수와 구체라는 사이가 없으면 혈연이 구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부부는 존재의 근원이고, 혈연을 구성한다. 부부는 인간을 낳고, 자녀 - 형제로서의 사람을 만들며, 백부 - 고모 - 이모 - 삼촌 - 조카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개별 부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혈연과 가족과 천지자연의 존재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음양으로서의 부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자연적 뿌리이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인륜(人倫)의 시작이기도 하다. 즉, 인간 사회에서의 부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인간 세상에서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 59쪽 -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앎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더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 “쾌락” (70쪽)

‡ 공자의 죽음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 “논어” (70쪽)

‡ 장자의 죽음관

그가 처음에 죽었을 때에야 나라고 어찌 슬픈 느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지는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氣]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흐릿하고 아득한 속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었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고,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네. 지금은 그가 또 변화하여 죽어간 것일세. 이것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이니,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큰 소리를 내어 운다면 스스로 천명(天命)에 통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울음을 그친 것이네.
- “장자” (71쪽)

‡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

-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범죄와 형벌” (72쪽)

‡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반면에 이성적 존재는 인격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의 성질은 이미 목적 자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해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는 감정을 무디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 맺을 경우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점차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 칸트 (92쪽) -

‡ 패스모어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기독교이건 공리주의건 간에 전통적인 서양의 도덕적 가르침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인간에게 가르쳐 왔다. 쓰레기를 바다나 대기로 버리는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모두 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것에 의해 보충될 필요 없이 우리의 생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 - 93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예전에는 세계의 종말에 관한 판결로서 우리를 위협하였던 것이 종교였다. 오늘날에는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구 자체가 이 날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시는 예수가 설법하였던 시나이 산으로부터 오지도 않고, 석가가 깨우쳤던 보리수 나무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한때는 훌륭한 창조로 나타났던 이 지구의 황무지에서 우리 모두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바로 말없는 피조물들의 고발이다. - 97쪽 -

‡ 공맹의 선비 정신

- 공자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논어”
- 공자는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화락하면 선비라고 이를 만하다. 벗 사이에는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형제 사이에는 화락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논어”
- 증자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仁)의 실현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은가? 죽은 다음에야 그만두니 멀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 “논어”
- 맹자는 “항산이 없어[無恒産] 항심을 유지하는 것은[有恒心]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항상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맹자” - 116쪽 -

‡ 공자가 강조하는 화이부동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지만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라고 하였다. - “논어” (117쪽)

‡ 베버의 직업론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근대적 문화에 구성적 요소 중 하나인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 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32쪽)

‡ 마르크스의 소외(疏外)

노동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는 관계 속에서 노동은 그 자체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 이런 사실은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이, 곧 노동의 산물이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와 무관한 권력으로서 노동과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 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국민경제학적 상태에서는 현실성의 박탈로,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측으로, 획득이 소외 곧 의화로 나타난다. - 마르크스, “경제학 - 철학 수고” (133쪽)

‡ 마르크스의 정치사상

마르크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노동하며,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된 노동으로 인해 노동의 소외 문제와 노동력 착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토대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유물사관(唯物史觀)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를 거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 142쪽 -

‡ 밀의 언론의 자유

하나의 의견 발표를 침묵하게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 “자유론” (164쪽)

‡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국제주의적 입장

해외 원조에 관련된 롤스의 국제주의 | 개별적인 인간이 아닌 국민 국가 수준에서 해외 원조를 다루고 있는 롤스의 입장을 가리킴
- 190쪽 -

‡ 쾨어의 세계 윤리 선언문

우리는 모두 의존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전체의 복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공동체, 인간, 동 물, 식물, 그리고 지구의 보전을 위해 공기와 물, 흙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 (중략)...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남용도 배격해야 한다.
- 193쪽 -

‡ 2016학년도 수능완성

‡ 원효의 일심 사상

불교 경전의 여러 부분을 통합하면 만 갈래의 흐름이 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부처님의 뜻을 전개하면 백 가지 학파의 서로 다른 쟁론(諍論)이 그대로 살려져 조화될 수 있다.
- 원효, “십문화쟁론” (9쪽)

‡ 공자의 경(敬)

자료가 군자에 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경(敬)으로써 몸을 닦느니라.” 자료가 묻기를,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몸을 닦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 주느니라.” 자료가 묻기를, “이것이면 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몸을 닦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 주는 것이니, 이것은 요임금, 순임금도 힘이 들어 병통으로 여겼느니라.”
- “논어” (10쪽)

‡ 노자의 상선약수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못사람이 싫어하는 바에 거처하니,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거처함은 땅과 같이 잘하고, 마음 씀은 연못같이 잘하고, 함께함은 어질게 하기를 잘하고, 말함은 믿음직하게 하기를 잘하고, 정치함은 다스리기를 잘하고, 일함은 능숙하게 하기를 잘하고, 움직임은 때에 맞게 하기를 잘하니, 무릇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 “노자” (17쪽)

‡ 유불[대승]도의 이상적 인간상

- (가) 부귀(富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거든 자기 것으로 삼지 마라. 반면 빈천(貧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 그러나 자기 잘못이 아닌데 빈천하게 되었다고 남을 탓하지 말라. 군자가 인(仁)에서 벗어나고서야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루랴. 군자란 밥 먹는 짧은 시간에도 인을 벗어나지 않으며, 황당하고 당혹한 때에도 인을 실천한다. - “논어”
- (나)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해 열 가지 마음을 낸다. 열 가지 마음이란 이른바 크게 인자한 마음,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즐겁게 하려는 마음, 편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 기뻐하게 하려는 마음,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 중생을 수호하려는 마음,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스승처럼 여기는 마음, 여래(如來)처럼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그 열 가지 마음이다.
- “대방광불화엄경”
- (다) 옛날의 진인(真人)은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억지로 거역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일도 피하질 않았다. 이러한 사람은 잘못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며 잘되어도 잘되었다고 우쭐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물속에서도 젖지 않으며 불속에서도 뜨거워하지 않는다. 이는 세속의 앓을 넘어 자연의 도리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 “장자”
- 18쪽 -

‡ 불교의 중도(中道)

감각적인 욕망을 좇는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급하며, 속되고, 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 결과 없는 고행을 일삼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극단 모두를 버리고, 여래(如來)는 평온에 이르게 하고 뛰어난 앓을 얻게 하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중도(中道)를 발견하였다.
- “상응부”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 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주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은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장형의 성격은 오직 받는 것에 대한 교환으로서만 주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사기 당하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성향의 성격을 지닌 사람은 준다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대부분은 주기를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것을 희생이라는 의미의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덕을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 속에서 찾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규범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준다는 것은 잠재성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희열로 가득 채워 준다. 나는 자신을 충만되어 있고,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박탈이 아니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랑의 기술” (42쪽)

‡ 하이데거 ‘죽음으로의 선구’

그의 모든 존재 가능성들 가운데 가장 고유한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현존재는 어떤 다른 특정 가능성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기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문제시하게 된다. 그 안에서는 현존재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된다. 죽음을 자기의 가장 고유한 오직 자기만의 가능성으로 보게된 현존재는 이제 자기에게 잠재해 있던 능력, 즉 일상적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본래적인 자기로 실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새삼 자각하게 된다. 즉 자유인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각성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비본래적이었던지를 알게 된다. - “존재와 시간”

‡ 루소의 형벌론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에게는 수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줄도 알아야 한다. …(중략)…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 “사회 계약론” (49쪽)

‡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략)… 학술원 회원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발견과 실험에 관한 자료를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이들을 ‘빛의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동료들의 실험과 연구 결과로부터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원들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육체의 기능과 역할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끝으로 발견 결과를 다시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원리나 교훈을 끌어내는 회원은 ‘자연의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57쪽)

‡ 상어의 동물 해방론

1950년 네덜란드 축산업자들은 매우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얻는 방법을 개발했다. 비결은 송아지를 작게 개조한 우리 안에 가두고 사육하는 것이다. 먹이도 풀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성장 촉진제를 첨가한 탈지분유로 만든 액체 사료를 사용했다. 송아지들은 이런 환경에서 16주를 산다. 갓 태어났을 때는 체중이 40kg 남짓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16주를 보내면 180kg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생산한 송아지 고기는 야외에서 풀을 먹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장한 송아지 고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고기가 질기지 않고 색깔도 매우 연하기 때문이다. 송아지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촌의 상당수 동물은 인간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있다. 공장식 사육 시설에서 길러지는 각종 가축이나 연구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동물의 수는 엄청나다.

- “동물 해방” (64쪽)

‡ 레오폴드 ‘윤리의 진화’

윤리의 대상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점점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기 집안의 여자 노예들이 적들에게 굴종한 것을 알고 모두 죽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일을 윤리적으로 지탄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모두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대상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호메로스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온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진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따르면 모든 동식물과 토지까지 윤리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모래 군의 열두 달” (66쪽)

‡ 정약용의 청렴 사상

수령이 돌아가는 행장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어찌 훌륭한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나라 때 육장원이란 사람이 여주 태수가 되었는데, 매우 청렴하게 벼슬살이를 했네. 그가 뒷날 그 고을을 떠날 때 짐 실은 수레가 딱 두 대였네. 그는 ‘우리 할아버지가 여주에서 돌아오실 때는 수레가 한 대였는데, 책이 반을 차지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며 한숨을 쉬었다네. 청렴결백을 미덕으로 삼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목민심서” (81쪽)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특수적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나 돈, 혹은 정치 체제를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하는 분배적 정의이다. 다른 한 종류는 상호 교섭에 있어서 성립하는 시정적(是正的) 정의이다.
- 사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또 이것은 가치(공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분명하다. 분배에 있어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고, 부정의한 것은 동등하지 않음이며, 이때의 동등함은 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 비례에 따르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서 탈취했던 나쁜 사람이 훌륭한 사람에게서 탈취했던 아무 차이가 없으며, 훌륭한 사람이 간통했던 나쁜 사람이 간통했던 그 역시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은, 한 사람은 부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을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당사자들은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부정의한 것은 동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때리고 다른 사람은 맞은 경우, 혹은 어떤 사람은 죽이고 다른 사람은 살해된 경우라면, 그 당한 것과 가한 것은 동등하지 않게 나뉜다. 재판관은 이익을 삭감함으로써 손해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 (82쪽)

‡ 노직의 최소 국가

국가에 관한 우리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이라는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된다. 둘째,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셋째, 최소 국가는 옳을 뿐만 아니라 영감 고취적이다. 이 결론들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88쪽)

‡ 롤스의 ‘원초적 입장’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사람이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원상(原狀; status quo)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인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기 때문이다.

- “정의론” (90쪽)

‡ 마르크스의 노동관

노동자는 그가 부(富)를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또 그의 생산의 힘과 범위가 증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그가 더 많은 산물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더 저렴한 상품이 되어 버린다. 사물화된 상품 세계의 가치 증식이 곧바로 인간 세계의 가치 절하를 가져온다.

- “경제학 철학 초고”

‡ 와일드의 심미주의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다.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비평가란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인상을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소재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추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아무런 매력 없이 타락한 인물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교양이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세상에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없다. 책은 잘 씌어졌거나 아니면 형편없이 씌어졌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예술가는 그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사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다.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예술을 위한 소재이다.

-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04쪽)

‡ 엘리야데의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비단 구조상 마술적 · 종교적 성질을 가진 근대인들의 수많은 '미신'과 '금기'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비종교적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주장하는 근대인들도 여전히 수많은 은폐된 신화와 변질된 제의(祭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는 비록 속화되기는 했을망정 여전히 갱신의 제의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새 지위의 획득, 사회적 진출 기타 등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 "성과 속" (11쪽)

‡ 맹자의 민본주의

(가) 만장이 물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다시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천하를 가졌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었다." 만장이 물었다. "하늘이 주었다는 것은 자세하게 알려주듯이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적과 사실로써 보여 줄 뿐이다. ... (중략) ...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 (중략) ... "상서"에서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 "맹자"

(나) 맹자가 말했다. "고정적인 생업[恒産]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데 이른 이후에 그것을 좇아서 형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해 잡는 것입니다. ... (중략) ... 칠십 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 "맹자" (122쪽)

‡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론

(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하거나 최선인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런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목표, 차단점(cut-off point)을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을 겪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 롤스, "만민법"

(나) • 내가 강연을 하러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가 얇은 연못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라. 나라면 쉽게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신발과 바지에 흙탕물을 뒤집어써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신을 바꿔 신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강연은 취소해야 할 것이며, 또 신발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보다 그런 작은 고려 사항들을 더 중시한다면 그것은 추한 일이 될 것이다.

(나) •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벵골인인지가 나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130쪽)

† 2017학년도 수능특강

‡ 칸트의 윤리 사상

•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19쪽) -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를 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실천 이성을 통하여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하여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정언 명령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엇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9쪽) -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

칸트의 윤리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한 순수한 윤리의 형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형식주의란 칸트가 도덕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 벤담의 공리주의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실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유용성(공리)의 원리는 이런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또한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로서 이런 복종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유용성(공리)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를 증진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22쪽) -

‡ 규칙 공리주의

미시간 대학 교수인 리처드 브란트는 1959년 공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고자 ‘행위’와 ‘규칙’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행위 공리주의는 그 직접적인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개별 행동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일부는 규칙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전제된 규칙의 일반적 이행의 결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규칙 공리주의자는 “항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행위 공리주의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행복에 도움이 될 때만 그렇게 하라.”고 응수할 수 있다.

- 레이먼드 W. 베이커,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23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하여 완성한다. 그러니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3쪽) -

‡ 길리건의 배려 윤리

여성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 지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과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여성의 판단이 언뜻 산만하고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여성의 도덕적 장점, 즉 여성들이 인간관계와 배려의 의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중략)…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를 뿐만 아니라 배려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24쪽) -

‡ 나딩스의 배려 윤리

배려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중략)… 자연적 배려의 상태는 배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관계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자 최종 귀착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나딩스, “배려 교육론” (24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 과학 기술이 인간 자신의 생존과 여타의 생명체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여타 생명체들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요청되는 긴박한 책임이며,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고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책임일 수밖에 없다.
-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25쪽) -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대화 상대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하고 판단력과 지각이 있는 주체로 대한다.
-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나 다른 대화 상대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모든 대화 참가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물음에 개방적으로 답변하고 토론에 임한다.
- 인종 또는 계급적 편견이나 지위가 대화 상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대화 중에 제기된 물음이나 질문에는 그 어떤 금기도 적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26쪽) -

‡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중 차별주의를 극복하고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다루고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나의 애완견이 ‘육구하는 모든 것’을 나는 고려해야만 하는가? 나의 식사와 내 애완견의 식사는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동등 대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동물들의 수준에서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의 애완견의 동물적 특성을 고려해 음식을 고려해야지 ‘나의 식성에 맞추어 나의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물’로 취급하거나 산책을 한 달에 1~2번 시키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애완견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 49쪽 -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보호, 책임, 존경, 이해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것들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

‡ 보부아르의 여성주의

어떤 다른 이원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양성 간의 이원 구조 역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승자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왜 처음부터 승리해야 했을까? 여성이 승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갈등의 결과가 판가름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이 세상은 항상 남성에게 속해 있었고 아주 최근에만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이 변화는 좋은 것일까?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세상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게 할 것인가? -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60쪽) -

‡ 밀의 여성주의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낸 원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완전 평등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어느 한쪽에 권력이나 특권을 주면서 그 반대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예속” (61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뛰어난 사고 능력과 그 우월한 사고로 인하여 가능하였던 기술 문명의 힘으로 하나의 생활 양식, 즉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자신도)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다. …(중략)… 현 세기에 들어오면서 오래 전에 예고되었던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로써 위험은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의 영역에서는 자명한 일이었다. 책임이 최근에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러한 영역에 대한 권력의 - 1차적으로는 파괴의 권력이지만 - 확장과 연관이 있다. 권력과 위험은 하나의 책임을 눈앞에 보여 준다. 이 책임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 외의 다른 것들과도 유대해야 하며, 자신의 존재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대를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85쪽) -

‡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혀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중략) ... 중요한 문제는 동물의 고기가 고통 없이 생산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고기가 고통 없이 생산되었느냐 여부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우리 자신의 보다 작은 이익을 위해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러한 생산 과정[공장식 농장(factory farm)]의 결과물을 사는 것은 이러한 생산 과정을 지지하고 생산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중략) ... 우리가 먹게 될 동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를 채식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93쪽) -

‡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적·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 레건, 『동물권 옹호』 (94쪽) -

‡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 기본 관점

-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연계망)이다.
-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불간섭의 의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성실의 의무: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해야 함
-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 95쪽 -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중략) ...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96쪽) -

‡ 밀이 주장한 자유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중략) ...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 (중략)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 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 밀, "자유론" (110쪽) -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국가 공동체의 목적

- 국가는 자연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임이 명백하다. 본성적으로 국가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이거나 또는 인간을 넘어선다. 그런 사람은 호메로스가 말하듯이 부족도 없고, 법도 없고, 가정도 없는 사람이다.
-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공동체들이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상위의 것이며 또한 나머지 공동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또는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모든 학문과 기술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이다. 모든 기술과 학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 즉 정치학의 기술과 학문에서 목적으로 하는 선이 가장 좋은 선이다. 정치학 분야에서 선은 정의이며, 정의는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19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탐욕스럽고, 공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올바름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것일 것이며, 올바르지 않음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일 것이다. …(중략)…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과 그것에 따르는 옳은 것의 한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나 부(富)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머지 한 부류는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름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름도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고 또 올바르지 않음은 어떤 종류의 동등하지 않음이지만, 그 올바름은 다른 부류인 그 유형의 비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 노직의 최소 국가

우리의 경우 중앙 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유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중략)…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 노직, “아나키아에서 유토피아로” (122쪽) -

‡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노름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공정한 내기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거의 모두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노름의 최종 결과가 공정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일련의 공정한 판들을 벌인 끝에 생긴 결과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정한 절차는 그것이 실제로 진실되게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그 결과에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 롤스, “정의론” (123쪽) -

‡ 사형 제도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관점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23쪽) -

‡ 로크의 동의

-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개인이 정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어느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던 간에, 그는 그 행위에 의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그것들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로크, “통치론” (136쪽) -

‡ 소로의 시민 불복종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중략)…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악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 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 소로, “시민 불복종” (137쪽) -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우리의 실정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말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 136쪽[날개에 있었음] -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롤스, “정의론” (136쪽) -

‡ 정약용의 공징자 윤리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진실한 충성심에 기반한다. 충성되고 청렴하면 백성이 따를 것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 읍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러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의심과 비방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만 할 경우에는 몇 자의 편지를 쓰되 풀로 봉하지도 말고 직접 관아의 일 보는 사람에게 주어서 공공연히 받아들이도록 해 주기 바란다.”하라. 매양 보면, 친척들 중에 때를 타서 청탁을 하다가 인심을 몹시 잃어서, 수령이 떠난 뒤에는 마치 강물은 흘러가고 돌은 남는 격이 되어서 못사람의 노여움이 빗발치듯 하여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 정약용, “목민심서” (148쪽) -

‡ 도덕주의 예술론

- 훌륭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잘 지은 것들을 아이들이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시인들을 비롯한 모든 장인들은 좋은 성품의 상을 작품 속에 새겨 놓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작품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작품들을 대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닮도록 해야 한다. - 플라톤, “국가” -
-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156쪽) -

‡ 심미주의 예술론

-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인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예술가에 있어서 윤리적 동정심이란 양식(style)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mannerism)이다.
- 와일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
-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 스펡진, “창조적 비평” (156쪽) -

‡ 예술에 대한 칸트의 입장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그들의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 칸트, “판단력 비판” -

‡ 엘리아데의 종교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 엘리아데 (159쪽) -

‡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 가치 있는 재화의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의 세속적 명성의 수단이다. 부가 그의 손에 축적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부유함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귀중한 선물을 하거나 값비싼 향연과 연회를 베풀어 친구나 경쟁 상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 소비자가 어떠한 형태의 지출을 선택하고, 그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였든, 그것은 그의 선호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낭비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170쪽) -

‡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 피터 싱어 -
-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은 그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 존 롤스 -

† 2017학년도 수능완성

‡ 요나스의 '새로운 윤리학'

모든 것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과 결과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전통적인 자연관으로는 인간의 기술적 간섭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침해를 막기가 어렵다. 우리는 지구의 전체 생명에 대하여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인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중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리의 토대에서 적지 않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존재 및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6쪽) -

‡ 칸트의 선의지

'선의지'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 즉 나의 모든 경향성을 버리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 뿐이다.

- 칸트, "도덕 형이상학 정초" (11쪽)

‡ 행위 공리주의 vs 규칙 공리주의

-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대안들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할 때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수용한다.
 -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가 아니라 규칙 또는 규칙의 집합에 적용하고자 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먼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을 결정한 다음, 그 규칙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12쪽 -

‡ 나딩스의 배려 윤리

정의를 주장하는 관점은 종종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처방하고 문제를 이론적으로 풀 것을 공언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적용상의 결함 탓으로 돌린다. ... (중략) ... 정의가 포기하는 부분을 종종 배려가 찾아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정의로운 결정을 하게 되면 윤리적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 나딩스, "정의와 배려"

‡ 칸트의 도덕적 행위란?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이다. 박애주의자의 기분이 슬픔으로 흐려져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동정심이 모두 사라지고 타인의 곤궁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 보자. 이제 더 이상 남을 돕고 싶은 경향성이 생기지 않을 텐데도, 그 사람이 이 지독한 무관심을 떨쳐 버리고 아무런 경향성 없이,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 행위는 참된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 본성상 마음에 동정심이 거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다른 점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지만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그 자신이 남다른 인내심과 강한 끈기를 타고났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지어 요구한다고 하자. 그 사람도 하나의 원천, 즉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그런 원천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않을까? 물론 발견할 것이다! 품성의 가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 칸트, "도덕 형이상학 정초" (14쪽)

‡ 덕 윤리

-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는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품성적 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우리는 공동체적 삶과 덕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회가 지니게 된 병폐의 원인은 공동체의 상실과 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과 그러한 공동체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덕을 육성해야 한다. ... (중략) ... 덕은 획득된 성품이며, 그것의 실천으로 우리는 행위에 내재한 선(善)들을 성취할 수 있다. 또한 덕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선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증진시킨다. 그리고 덕은 우리 삶에 필요한 전통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14쪽)

‡ 하이데거의 죽음관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역시 오직 나만의 것이다. …(중략)… 죽음은 어떤 가능성보다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으로서 우리에게 경험된다. 따라서 죽음을 자신 앞으로 가져와 직면한 인간은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갖게 된다. 즉 그는 죽음을 통해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을 본다.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21쪽)

‡ ‘인간 복제 기술’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하버마스는 좋음보다 옳음이, 좋음의 윤리보다 옳음의 도덕적 타당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올바름에 근간하지 않고 좋음의 이해에 따라 변화하는 윤리적 자기이해는 인간 자연의 기술화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인간 복제나 배아 연구 등의 인간 자연의 기술화는 인간 종의 도덕적 인격성에 근간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좋음을 재규정한 윤리적 자기이해에 근간하게 된다. 이러한 좋음의 윤리적 자기이해에서 외면되는 것은 인간 종의 자연 발생적 조건에 근간한 자유와 평등이다. “인간 자연의 기술화는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윤리적으로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평등한, 규범과 근거를 지향하는 생명체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끔 인류 전체와 연관된 윤리적 자기이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하버마스는 유전학적 강화와 배아 연구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인간 종의 자연 발생적 조건과 자유와 평등의 보편타당성을 버린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31쪽 -

‡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의 모든 형태에 공통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에는 ‘배려·책임·존경·지식’이 있다. 사랑이 배려를 의미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약 우리들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본다면, 또 그녀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육체적인 안정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본다면 그녀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도 우리를 진심으로 감동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들이 그녀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을 말한다. 이렇게 능동적인 관심이 결여된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배려와 관심은 사랑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 즉 책임의 측면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책임은 흔히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외부로부터 그에게 부과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 있어서 책임은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타인의 표현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이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반응할 능력이 있다거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동생의 생은 동생의 일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그의 친구에게도 책임을 느낀다.

만약 사랑의 제3 구성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어쩌면 책임은 지배 또는 소유욕으로 쉽게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아니라 그 어원에 따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지각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존경이란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관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존경은 착취의 부재를 의미한다. - 프롬, “사랑의 기술”

‡ 요나스의 책임 윤리

마침내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새롭게 등장한 윤리학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이제까지 윤리학은 책임의 윤리학과 같은 종류의 대상을 가진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윤리 이론은 이제까지 별로 연구되지도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예견하고 지구의 전 영역을 인과성의 의식 속에 포함시키기에는 지식과 권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학은 미지의 운명 속에서 추후 결과를 한가롭게 추측하는 대신에 현재의 순간적 행위가 갖는 윤리적 성격에만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 순간적 행위에서는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를 전례 없이 미래에까지 적용시키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장기적 결과의 엄청난 규모와 그 환원 불가능성이 첨가된다.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 놓는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54쪽)

‡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이런 행위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을 당신의 소유주로 만든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중략)…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78쪽)

‡ 칸트의 사형제 존치론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규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형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만일 …(중략)…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후략)…[인용자 편집] - 칸트, “윤리 형이상학” (79쪽)

‡ 롤스의 정의론

- 사상 체계의 첫 번째 덕목이 진리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세련되고 간결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더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후략)…[인용자 편집]
- 롤스, “정의론” (80쪽)

‡ 칼뱅의 구원 예정설

신은 일찍이 자신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통해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은 내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 공평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름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이 정한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 칼뱅, “서간문” (95쪽)

‡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

소외란 인간이 만든 노동 생산물이 생산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인간에게 낯선 존재, 대립적인 존재가 되고 나아가 이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해 종속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생산한 물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노동 소외를 겪게 된다. 노동이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 마르크스, “자본론” (97쪽)

‡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대중 예술론

- 아도르노 : 이에 따라 모든 것이 교환할 수 있는 것만큼의 가치만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한다. …(중략)… 문화 산업의 총체적 효과는 일종의 반(反)계몽이다. 호르크하이머와 내가 주목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자연에 대한 진보적인 기술적 지배로서의 계몽은 대중 기만이 되고 의식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전화(轉化)되는 것이다. 문화 산업은 개인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발전을 방해한다.
- 벤야민 : 아우라(Aura)란 그 예술이 진품이거나 일회적이거나 혹은 원본이라는 데서 나오는 독특하고 신비한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 아우라는 기술 복제 시대에 이르러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 구글은 모나리자라는 검색어로 0.32초 만에 152만 개의 복제된 이미지를 검색해 주고 집 앞 이발소의 달력에는 모나리자가 오묘한 미소를 띠며 낡아 빠진 면도날을 쳐다보고 있다. 모나리자는 도처에 존재한다. 이러한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아우라의 붕괴를 가져오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신비적·종교적 요소가 제거되면서 감상자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진다.
-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105쪽)

‡ 엘리아데의 성과 속

- 순수한 상태로서의 비종교적 인간이란 심지어 가장 탈신성화된 근대 사회에서조차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는 비록 속화되기는 했을지언정 여전히 갱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취임, 승진 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중략)… 엄격히 말해서, 무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종교적 행동, 신화와 신화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회화의 지점까지 왜곡되고 따라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버린 주술적·종교적 여러 관념의 쓰레기 아래서 휘청거린다. …(중략)… 철저히 탈신성화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안하고 덧없는 지속으로 나타난다.
- 종교적 인간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면, 세계는 성스러운 것, 따라서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이다. 따라서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항상 어떤 종류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는데, 즉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중략)… 여러 가지 우주의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성을 명백히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고,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현 존재와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05쪽)

‡ 볼노브의 거주론

집은 인간의 삶의 중심이며 요람이다. 집은 인간의 삶을 한곳에서 뿌리내리게 하고, 그곳으로부터 세계와 우주가 열리는 통로이다. 우리는 집 안에서 안정하고 휴식하며 보다 크고 넓은 삶의 장소로 진입한다.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 한 장소에 대한 뿌리내림과 거주를 바탕으로 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그의 삶의 터전이며 확고한 중심으로 작용한다. - 볼노브, “인간과 공간” (111쪽)

‡ 하이데거의 거주론

- 본래적 의미의 건축이란 인간이 죽을 자로서 지상에 거주하는 한 방식이다. 그리고 인간이 죽을 자로서 지상에 거주한다는 말의 근원적 의미는 불사의 신들과 죽을 자로서의 인간, 그리고 하늘과 대지가 서로 어울려 있는 근원적 세계인 사역(四域)[사방]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사역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대지를 구원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며 신을 기리고 죽을 자로서 다른 인간들을 본래적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서는 대지와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을 통일적으로 사물들 안에 진입시키는 견실한 능력을 통해서 그 집이 지어졌다. 농가는 바람을 막는 산기슭에 남향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는 풀밭과 샘물이 있다. 폭이 넓은 판자 지붕은 적당한 경사로 눈의 하중을 견뎌 내고, 아래로 상당히 깊숙이까지 내려와 있어서 긴 겨울밤의 폭풍으로부터 방 안을 보호해 주었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탁 뒤에는 십자가나 성모상을 모시는 성소(聖所)가 있었고, 출산과 슈바르츠발트에서는 자르그(관: 棺)라 불리는 임종을 위한 지성소(至聖所)가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 각 연령층마다 시간을 통과할 때 그들이 걸어야 하는 행보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 하이데거,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113쪽)

‡ 베블론의 과시 소비론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회 계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모호해지고 가변적인 것이 되어 가지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규준은 그에 대한 약간의 저항을 제외하면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그 강압적인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장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 이상의 달성에 실패하여 평판이 실추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도 그렇듯 공인된 규범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인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과시적 여가와 소비의 발달 과정을 탐색해 보면 명성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두 방편의 유용성이 두 방편의 공통 요소인 낭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다른 한편으로 재화의 낭비로 나타난다. 두 가지 낭비는 모두 부를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명성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체면 유지를 위한 요소로도 강조되는 과시적 소비는 개인의 인간적인 접촉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인구 이동이 가장 심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최선의 소비로 여겨진다.

도시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인습적인 기준에 맞는 높아진 요구 조건은 이제 의무 조항이 되어 버린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체면치레에 요구되는 기준은 높아지고, 그것은 계급의 고통을 먹고 더욱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113쪽)

‡ 롤스의 만민법

질서 정연한 만민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 (중략) ...
6.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 롤스, “만민법” (119쪽)

‡ 싱어의 해외 원조론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갖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년 소득의 1퍼센트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부한다면 말이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120쪽)

‡ 갈통의 평화론

- 폭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 오는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폭력인 직접적 폭력과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 경제적 상태, 정치나 법률, 개발 등에 포함되며 억압과 착취가 대표적인 구조적 폭력, 그리고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서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느껴지게 만든다. 문화적 폭력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 폭력의 행위와 구조적 폭력의 사실이 합법화되고, 따라서 사회에 수용되는 방식을 강조한다. 문화적 폭력이 작동하는 한 가지 방식은 한 행위의 도덕적 색채를 붉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푸르고 올바른 것으로 또는 적어도 노랑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한 가지 예로 ‘조국을 위한 살인은 올바르고, 자신을 위한 살인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현실을 불명료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폭력

적인 행위나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폭력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21쪽)

† 2018학년도 수능특강

‡ 기술 윤리학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 인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다른 사회와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탐구해 왔다. ... (중략) ...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편의상 현실적 도덕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술 윤리학 (descriptive ethics)이라고 부를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9쪽) -

‡ 칸트의 윤리 사상

-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지만 이런 천부의 자질들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결코 결과가 아닌 나의 의지와 연결된 것만이, 그러니까 순수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그와 함께 명령일 수 있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20쪽) -

‡ 아퀴나스의 자연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법으로서, 영원 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이 자신에 내재하는 신의 빛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유래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법의 명령은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상응하는 계층적인 질서로 설정된다. 제1의 자연 성향은 인간이 다른 모든 실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기 보존 본능이요, 제2의 자연 성향은 동물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성향, 즉 성욕과 종족 보존 본능이며, 제3의 자연 성향은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간만이 갖는 본능인데 그것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려 하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이다. - 사하키안,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

‡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성의 원리란,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또는 달리 말하면 그러한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나는 각각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까닭에, 내가 말하는 바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공리성이란 이익 당사자에게 이익·이득·쾌락·선·행복을 낳거나 손해·해악·고통·악·불행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 있는 성질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만일 그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22쪽) -

‡ 밀의 '쾌락의 전문가'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22쪽) -

‡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에서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른 한편 규칙 공리주의에 의하면,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유용성이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23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중략) ... 우리는 모자람과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절제와 용기, 그리고 다른 덕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이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나 용기와 같은 도덕적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며,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3쪽) -

‡ 길리건의 배려 윤리

여성과 남성은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르게 경험한다. 남성성이 독립을 통해서 규정되고 여성성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므로 남성적 정체감은 친밀감에서 위협을 느끼는 반면, 여성적 정체감은 다른 사람 들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24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

‡ 하버마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

모든 담론의 참여자들은 언제나 담론을 개시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담론의 참여자는 주장, 권고 및 설명을 제시하거나 정당화를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행위자로서 그들의 태도, 소망, 감정 및 의향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명령하고, 반박하고, 허가하고, 금지하는 등의 언어 행위를 적용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논증들에서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협동적 진리 탐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한다. 실천적 담론이 규범적 합의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론은 오직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들의 토대 위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26쪽) -

‡ 플라톤의 죽음관

사유(思惟)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철학자는 이와 같이 육체를 신통치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육체에서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하는 것이다.

- 플라톤, “파이돈” (34쪽) -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때에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한다. 반면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 “쾌락” (35쪽) -

‡ 싱어의 동물 해방론

만약 실험자들이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실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자 간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쪽은 우리 종의 구성원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

- 싱어, “동물 해방” (49쪽) -

‡ 플라톤의 사랑의 근원적 의미

옛날에 인간들은 무서운 힘과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야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우스는 “우리는 인간을 그대로 생존하게 하면서도 그들을 지금보다 약하게 하여 난폭한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소. 나는 모든 사람을 두 동강이로 쪼개려고 하오. 그러면 그들은 지금보다 약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수가 늘 것이요”...(중략)... 이렇듯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먼 옛날부터 인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본래의 몸뚱이의 부분을 다시 한데 모아, 둘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인간의 본래의 구조를 회복하려 하는 거지요.

- 플라톤, “향연” (58쪽) -

‡ 보부아르 ‘제2의 성’

- 여자는 언제나 남자에게 딸린 아랫사람이었다. 남녀 양성이 세계를 같이 평등하게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 남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여자들이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참여하기 시작한 오늘날에도 이 세계는 아직 남자들의 손에 꼭 쥐여 있다. 남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지들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남자와의 공모를 거절하는 일은 여자들에겐 상층 계급인 남성 사회가 자기들에게 부여할지도 모르는 이익을 단념하는 일이 된다.
 - 여자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60쪽) -

‡ 헤겔의 결혼관

- 혼인의 주관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혼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애정이나 혹은 양친의 배려와 준비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출발점은 두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인데, 이 동의는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 혼인이라는 통일 속에서 그들의 자연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성을 지양(止揚)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통일은 하나의 자기 제한이지만 두 사람이 이 통일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자기 의식을 취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해방인 것이다.
-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사랑의 감정이 실제적 통일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이 통일은 아직 아무런 객관성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이런 객관성을 갖게 되며 또한 바로 이들 자녀를 통해 결합의 전체를 목도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통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녀를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마침내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름 아닌 그 자신들의 사랑을 직감하게 된다. - 헤겔, “법철학 강요” (69쪽) -

‡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입장

[이 이후로 수능특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문들]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략)…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중략)… 인간 오성은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서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사태란 전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 -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81쪽) -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단지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기술은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파악한다. 그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본다.

‡ 도구적 이성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견해

도구적 이성이란 목적의 타당성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목표를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을 말한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근대 이후 본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었던 이성이, 주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실증주의와 실용주의 사조가 이러한 도구적 이성을 대변하는 철학이다.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이 과거에 인간이 추구할 보편적 개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그 자체로는 내용을 담지 못한 도구적 개념으로 이용된다. 인간의 이성과 개념은 이제 지배 계급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 82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새로운 종류의 인간 행위가 인간의 관심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의무는 더욱 확장되고 모든 전통 윤리의 인간 중심적 제한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중략)… 인간 외적인 자연의 상태, 즉 우리 권력에 예측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생명 영역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생명 영역이 인간의 일종의 신탁 재산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적 권리에 따라 우리에게 대해 도덕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윤리의 토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것은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염려를 인간의 선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85쪽) -

‡ 레건의 동물 권리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 레건, “동물의 권리” (94쪽) -

‡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95쪽) -

‡ 칸트, 베카리아의 사형제 존폐론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 …(중략)…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24쪽) -

‡ 로크의 묵시적 동의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로크, “통치론” (136쪽) -

‡ 로크의 저항권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중략)… 입법부가 야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로크, “통치론” (137쪽) -

‡ 소로의 시민 불복종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중략)… 공자는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하다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남부의 어느 먼 항구에서 나의 자유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매사추세츠 주의 보호의 손길이 내게 미치기를 내가 원하게 될 때까지는, 또 내가 고향에서 평화적인 사업을 해서 재산 모으기에 전념하게 될 때까지는, 나는 매사추세츠 주에 대해 충성할 것을 거부하고 나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주 정부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 나로서는 이러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복종의 처벌을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잃는 것이 적다. 정부에 복종할 경우 나는 자신의 가치가 전에 비해 떨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소로, “시민 불복종” (137쪽) -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137쪽[날개에 있었음] -

‡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

‘직업’이라는 개념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중심 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교리는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현세적 의무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곧 그의 ‘직업’이 된다. …(중략)…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고,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45쪽) -

‡ 마르크스의 매뉴팩처 비판

매뉴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뉴팩처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뉴팩처는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로 만든다. - 마르크스, “자본론” (145쪽) -

‡ 순자의 예악론

음악은 성현이 즐기는 바로서, 이것으로 민심을 선도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악(禮樂)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화목해진다. - “순자” (156쪽) -

‡ 와일드의 심미주의

와일드가 도덕주의적 예술관을 배격하는 비근한 근거는 “예술이 그 완벽함을 그 자체 속에서 찾아야지, 그 자체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이다. 이 명제에 따르면, 예술을 공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목표에 전용함은 예술을 오용하는 일이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지 않는 것만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와일드가 말하고 있거니와, 이는 곧 실용적인 목적이 없는 것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예술은 완벽하게 쓸모가 없다.” 그는 일종의 탈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 존슨, “심미주의” (157쪽) -

‡ 하이데거와 현대인의 고향 상실

하이데거는 현대 과학 기술은 “모든 존재자들을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무자비하게 동원”하고 지배함으로써 “모든 존재자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발현하면서도 서로 조화와 애정을 갖고 운영되었던” ‘고향의 세계를 추방해 버렸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현대의 우리에게 마음 붙일 수 있는 고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스럽고 안정된 삶의 세계로서 ‘고(故)’, 그리고 익명의 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닌 자연적 유대와 서로에 대한 애정의 공간으로서 전통을 공유했던 ‘향(鄉)’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 롤스의 해외 원조론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롤스는 “만민법”에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국제 원조에 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duty of assistance)가 있다. - 183쪽 -

‡ 갈통의 폭력과 평화의 이해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 복지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으로 익명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나 사상, 언어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다. - 185쪽 -

† 2018학년도 수능완성

‡ 갈통의 폭력과 평화의 이해

개별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신의 율법처럼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 체제라 할 수 있다. 사회에는 남이 하지 않은 관례를 처음 만들고, 더욱 발전된 행동과 더 수준 높은 취향과 감각을 선보이는 사람도 필요하다. 인간은 양 같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인류가 지금처럼 이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토론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 밀, “자유론” (5쪽) -

‡ 나딩스의 배려 윤리

나딩스는 배려를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배려 윤리의 핵심을 관계성에서 찾는다. 그녀는 배려 관계에서 배려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로 ‘몰두’와 ‘동기 전환’을 들고 있다. 몰두란 배려하는 대상에 대한 개방적이고 선별적이지 않은 수용을 뜻한다. 어떤 사람을 배려한다는 말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느끼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몰두라고 한다. 또 배려할 때,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감정 이상의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동기 전환이다. 배려할 때 나의 동기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흐르고, 상대방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나의 동기 에너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묻는 낯선 사람을 돕겠다는 이 마음이 동기 전환이다.

한편 배려를 받는 사람의 의식 상태로는 ‘수용’, ‘인지’, ‘반응’을 들 수 있다. 배려를 받는 사람은 배려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배려를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배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배려하는 사람을 몰두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배려를 하는 쪽과 배려를 받는 쪽 모두의 기여를 통해 배려는 완성된다.

나딩스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도덕성의 원천을 감정에서 찾는다. 그녀는 감정에 기초한 자연적 배려에서 윤리적 배려로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윤리적인 것을 설명한다. 즉 ‘나는 해야 해.’라고 하는 도덕적 명령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다는 뜻이다. 배려의 근본적인 상황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 14쪽 -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해체된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 주요 가르침Ⅱ -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21쪽) -

‡ 장자의 죽음관

참된 지혜를 터득한 자는 도(道)가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오. 그래서 살아 있음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역겨워 하지도 않소. 처음과 끝이 되풀이되므로 집착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오.

- “추수” -

옛날 사람 중에는 그의 슬기가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던 이가 있었다. 어떤 경지에까지 도달했는가? 첫째로는 처음부터 물건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지극하고 완전한 경지여서 여기에 더 보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으로는 물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삶을 죽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 죽음이란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이미 생긴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에 삶이 있게 되었고, 삶도 곧 죽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가 없는 것을 머리로 삼고, 삶을 몸뚱이로 삼고, 죽음을 공동어로 삼는 것이다. - “경상초” -

‡ 요나스의 ‘복제 인간’에 대한 입장

복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타인들 역시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와 타인의 이러한 선지식은 그가 ‘그 자신’됨의 자발성을 마비시킨다. 세포를 증여해 준, 이미 알려져 있는 -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 원형은 모든 기대와 예언, 희망과 공포, 비교, 성공과 실패 및 충족과 실패의 기준을 그의 세포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되어 가는 자가 서서히 구축해 가는 지식이 아니라, 기존의 원형이 가지고 있었던 완료된 지식에서 얻어 낸 것이다. 유전자형의 복제가 정말로 생명 도식의 반복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증여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되었으며, 복제 인간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 선천적 본성과 교육을 통한 인격 함양의 가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복제 인간과 그의 환경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연극 상연을 위한 대사가 이미 주어짐으로써 양자의 상호 작용은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은 그것의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물음 가운데 가장 은밀한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차단되기에 이른다. 이 물음은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발생되어야 하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오직 비밀이 계속해서 대답의 추구에 수반될 경우에만 발견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 이 비밀이야말로 자기에 대한 물음과 추구의 가능 조건이며, 해답을 찾는 자에게 이 비밀은 심지어 어떤 것이 대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출발 당시의 거짓된 드러남, 즉 인간 주체 안에 놓여 있는 비밀의 부재는 진정한 성장을 파괴한다. 거짓된 지식은 그것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고유한 정체성의 획득에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제된 인간이 존재의 실제적인 의미에서 무엇으로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존재 사실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 생각해야만 하느냐 - 이기 때문이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31쪽) -

‡ 인간 유전자 조작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어쨌든 계속해서 해명되고 있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합하는 조작과 곧 진화 자체를 인간의 손아귀에 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많은 유전학자의 기대는 지금껏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던 바로 그 영역들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자연 발생적인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의 범주적 차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자기 서술에서 불변적으로 가정했던 깊게 뿌리내린 범주적 차이를 생명 공학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전체와 연관된 우리의 윤리적 자기 이해를 변화시켜 그로부터 또한 도덕적 의식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오직 자신의 삶의 저자이자 도덕 공동체의 평등한 권리를 지닌 성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러한 자연 발생성의 조건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유전 정보가 프로그래밍되었다는 데 대한 인식은 우리가 몸으로서 존재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몸이라는 데 대한 자명성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또한 본래부터 비대칭적인 새로운 유형의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31쪽) -

‡ 보부아르의 여성주의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답다는 관념은 습관이나 유행에 따라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외부에서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된다. 그런 여자다움도 시대와 함께 변화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채택하는 표준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된다. ... (중략) ... 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적 존재들을 서로 구별하는 모든 특수성보다도 무한히 중요하다. 우월성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남녀는 자기들의 자유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짜 특권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둘 사이에 우애도 생길 것이다.

- 보부아르, “제2의 성” (39쪽) -

‡ 불교의 '효'

- 그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해 이 경(經)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독송하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을 위해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부모님을 위해 재계(齋戒)를 지켜 받들고, 부모님을 위해 보시(布施)를 해서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하면 곧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일컬을 것이며, 이런 행(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나 갈 자식이니라. - “부모은중경” -
- 그대들이 나의 제자로서 효순(孝順)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 생각마다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의 부모와 과거 칠세(七世)의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에는 *우란분재를 행하라.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구를 지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불자(佛子)라면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 “우란분경” -
- 중생의 은혜라는 것은 곧 처음 시작된 곳이 없어서 일체 중생이 오도(五道)에 돌고 돌아 백천겁(百千劫)을 지내는 동안 여러 번 태어나는 가운데 서로 부모가 되었다. 서로 부모가 되었던 까닭에 일체의 남자는 곧 자애한 아버지요, 일체의 여자는 곧 자비한 어머니이니, 옛날에 태어났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으므로 현재의 부모와 평등하며 차별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옛적 은혜도 오히려 갚지 못하였거늘 혹 망령된 업(業)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모든 것을 어기고 집착하는 까닭에 도리어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왜일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전생에 일찍이 부모였으므로 은혜를 갚아 서로 이롭게 함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 것이다. - “대승본생심지관경” -

* 우란분재(盂蘭盆齋): 불교에서 사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음력 7월 15일에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

- 46쪽 -

‡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협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53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시사하는 바

- 첫째,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요나스는 지금 여기에서 저지른 행위가 다른 곳이나 후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자연과 인류를 주요한 책임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속 가능성은 자연의 지속 가능성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 둘째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사후적 책임보다는 사전적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것은 그가 현대 과학 기술이 유발하는 결과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과 과학 기술적 행위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실한 과학적 증거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과학 기술자의 활동이 환경, 건강, 안전에 심각한 손상이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셋째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요나스는 책임 윤리의 전형으로 신생아의 예를 들면서 부모의 책임이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과학 기술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과학 기술은 과학 기술자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며, 과학 기술자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창조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과학 기술자도 자신이 만든 과학 기술이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 54쪽 -

‡ 베이컨,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주의 윤리

-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 (중략) ...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베이컨, “신기관” -
- 많은 동물들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보여 주지만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그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 (중략) ... 오히려 동물들은 그들의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있는 기관들의 배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계가 우리가 온갖 재주를 기울이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것과 같다. - 데카르트, “방법서설” -

- 60쪽 -

‡ 칸트와 요나스의 환경 윤리

-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 그것들의 현존이 비록 우리의 의지에 의거해 있지 않고, 자연에 의거해 있는 존재자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들이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이라면,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들이라 일컫는다.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들은 인격들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본성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의(自意)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들은 한낱 그것들의 실존이 우리 행위의 결과로서 가치를 갖는 주관적 목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목적들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 인류가 이제까지 실행한 것과 앞으로 실행할 것에 의해 마땅히 실존해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의 가능성과 항상 초월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우주적 책임으로서의 이 가능성의 보존은 바로 실존에의 의무를 의미한다. 인류의 실존은 간단하게 인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잘 산다는 것은 다음의 명령이다.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적나라한 존재적인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62쪽) -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는 과연 환경 파시즘인가?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인정은 하되 흙의 황폐화, 물의 고갈, 동식물의 멸종으로 이어질 정도의 이용, 즉 생태계의 손상, 대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의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레오폴드는 개체주의적 입장보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을 채택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개체주의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은 동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전체주의의 입장이 드러난다. 사실 이 두 입장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대립적 입장이다. 전체 생태 공동체의 존경을 위해서는 때때로 개별 구성원의 희생이 불가피할 수 있고, 또한 개별 구성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생태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입장이 상충될 때 레오폴드는 궁극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택하려 한다. “어떤 것이 생태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라는 표현에서처럼, 레오폴드는 생태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존중을 공동체 전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개별 생명체의 존속이라는 가치가 생태 공동체 전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과 상충되면 후자가 전자에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62쪽 -

‡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

-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중략)… 한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 정도를 넘어서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폭압적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을 반복 체험함을 통해서이다.
-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9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론

옳음이란 비례적인 것의 일종이다. …(중략)… 옳음은 역시 적어도 네 개의 향으로 성립하며, 한쪽의 비는 다른 한쪽의 비와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비슷한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A항의 B항에 대한 관계는 C항의 D항에 대한 관계와 같고 또 치환(置換)하면 A항의 C항에 대한 관계는 B항의 D항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또한 전체가 전체에 대하여 똑같은 비를 가진다. 그리고 이 전체란 분배에 있어서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요, 만일 이렇게 결합되기만 하면 옳게 분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A항을 C항에 결합시키고 B항을 D항에 결합시키는 것이 분배에서의 옳음이며, 또 이러한 종류의 옳음이 중간적인 것이며 부정이란 이 비례를 깨뜨리는 것이다. 비례적인 것은 중간적인 것이고, 옳음은 비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수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비례를 기하학적 비례라 부른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비례에서는 전체와 전체의 비가 분자 항끼리 혹은 분모 항끼리의 비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은 것이란 비례적인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란 비례를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이 행해질 때에는 어떤 항이 지나치게 커지고 다른 항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즉 부정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선을 취득하고, 부정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선을 취득한다. 악에 있어서는 사정이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다 작은 악은 보다 큰 악에 비하면 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다 작은 악이 보다 큰 악보다 더 선택할 만한 것인데, 또 선택할 만한 것은 선이며 더욱 선택할 만한 것은 보다 큰 선이다. 그러니 이것이 옳음의 한 종류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80쪽) -

‡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누는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 (중략) ...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 롤스, “정의론” (80쪽) -

‡ 소로의 시민 불복종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 (중략) ...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 소로, “시민 불복종” (88쪽) -

‡ 롤스의 시민 불복종

- 만일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
- 우리는 보통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 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법적인 보상 수단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이 판명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존하는 정당이 소수자의 요구에 대해 그들 스스로 무관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그 편의를 도모해 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 만일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적절히 유사한 상황의 기준으로서 앞에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동일할 경우 두 소수 집단은 만일 그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정도의 부정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똑같이 진실되고 정상적인 정치적 호소가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었다면 그들이 시민 불복종에 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89쪽) -

‡ 노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베버의 관점

- 만일 신이 너에게 너의 영혼이나 타인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제시 하는데, 네가 이를 마다하고 더 적은 이익을 주는 방법을 따른다면, 너는 너의 목적 하나에 역행한 것이며, 신의 대리인(집사)이 될 것을 거부한 것이며, 신의 선물을 받아 신이 요구할 때 그 선물을 그를 위해 사용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당연히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협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된 것이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 확고한 직업의 금욕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근대적인 전문직업을 윤리적으로 신성시했듯이, 이윤 기회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기업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영주의 고상한 방종과 벼락부자의 과시적 허세는 모두 금욕주의가 증오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직하게 지수성기한 부르주아는 대단한 윤리적 평가를 받았다. 즉 “신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성공적으로 신의 섭리를 수행한 성도(聖徒)에 대한 상용어이다.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97쪽) -

‡ 문화 산업 비판

오늘날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영화와 라디오와 잡지는 개개 분야에서나 전체적으로나 획일화된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독점 하에서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골격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가 단순히 장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쓰레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산업이라 부르며, 그들의 수입이 공개되면 그로써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103쪽) -

‡ 유교의 예술론

• “시(詩)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무리 지을 수 있게 하고 원망할 수 있게 한다.”, “우순(虞舜)의 공덕을 노래한 ‘소악(韶樂)’은 미(美)를 다하고 선(善)을 다했으나, 무왕이 주(紂)를 정벌한 공을 노래한 ‘무악(武樂)’은 미는 다했으나 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 공자, “논어” -

• “무릇 음악은 즐거움이며,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곧 즐겁되 어지럽지 않게 된다. 욕망으로 도를 잊으면 곧 미혹되어 즐겁지 않게 된다.”, “음악이 종묘에서 연주되어 군주와 신하, 아래위가 다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하나 되는 데를 살피어 부드럽게 조화로운 소리를 정하는 것이다.

- 105쪽 -

‡ 종교와 윤리 간의 관계

소크라테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이며 불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자네는 주장하는 건가?

유 티 프 론: 경건이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즉 살인을 하든 신전의 물건을 훔쳐 내거나 혹은 이 밖의 어떠한 죄를 범하든, 어쨌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그것이 자기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건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그 누구이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인데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소크라테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한 것은 많은 경건한 일의 예가 아니라 모든 경건한 일을 경건한 일이 되게끔 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네.

유 티 프 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소크라테스: 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한 것 또는 경건한 사람이며, 신이 미워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것이요 또한 불경건한 사람이란 말인가?

유 티 프 론: 그래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유티프론,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들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신들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되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신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 같네 그려.

유 티 프 론: 그럴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자네 대답에 따르면 경건한 것이 불경건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군.

- 플라톤, “대화편” (105쪽) -

‡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첫째, 미래에 전쟁의 계기가 될 소지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로 타국 소유가 될 수 없다. 셋째, 상비군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어 다른 국가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 간 대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를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다른 국가와 전쟁 중에 있더라도 국가는 장래의 평화를 위해 서로 불신할 수 있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칸트, “영구 평화를 위하여” (119쪽) -

‡ 갈통의 ‘폭력의 삼각형’

폭력은 직접적·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계기, 즉 구조의 요소 또한 포함한다. 직접적 폭력과 달리 구조적 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천천히 작동해 인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구조에 내장된 폭력을 의미한다.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직접적 폭력이 ‘사건’이고 구조적 폭력이 ‘과정’이라면, 문화적 폭력은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변체로서 직접적·구조적 폭력이 발현하도록 하는 폭력의 기저층으로 작동한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20쪽) -

‡ 아퀴나스의 자연법

신(神)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21쪽) -

‡ 밀의 질적 쾌락주의

만약 두 가지 쾌락 중, 이 둘 모두를 충분히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된다면, 설령 이러한 선택이 엄청난 양의 불만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의 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정도의 가치를 표현하는 더 큰 양에 비하여 그 선호된 즐거움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 밀, “공리주의” (22쪽) -

‡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 고대, 중세에서 인간 공동체 - 가계, 도시, 국가 - 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규정한 의미에서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실천의 의미는 넓다.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모두가 그 개념에 포함된다. 모든 실천은 그것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요구한다.
- 실천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가한 대로 나 자신의 행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을 규정하는 기준에 나 자신의 태도, 선택, 선호, 취향을 종속시키게 된다.
-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24쪽) -

‡ 나딩스의 배려 윤리

자연적 배려의 관계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선(good)’이라고 지각하는 인간의 상태와 동일시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되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배려, 즉 그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이다. 우리는 배려 관계 속에 남아 있고 배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상을 고양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 나딩스, “배려” (25쪽) -

‡ 플라톤의 죽음관

사유에 있어 이성의 활동에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각각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이성의 탐구 대상을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즉 신체는 영혼이 진리와 인식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가능한 한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 플라톤, “파이돈” (34쪽) -

‡ 하이데거의 죽음관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된다. 인간의 삶의 본성과 인간의 죽음의 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다.

- 마크 래틀, “How To Read 하이데거” -

‡ 장자의 죽음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자연)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지를 옛사람들은 천제(天帝)가 준 생사의 고(苦)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 장자, “장자” (35쪽) -

‡ 칸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제일의 의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일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37쪽) -

‡ 프롬의 사랑의 기술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 있는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랑의 기적적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 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 (중략) ...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적이며 자신의 내적인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깨우친 성숙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59쪽) -

‡ 보부아르 ‘제2의 성’

-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배웠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비판하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우월한 계급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남성의 세계는 여성에게 초월적 현실, 하나의 절대처럼 보인다. 프레이저가 말하고 있듯이, “남성은 신(神)들을 만들고, 여성은 그 신들을 숭배한다.” 남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라도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길에서 거대한 조상(彫像)들을 만날 때, 그녀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손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자아이가 남자 형제들과 같은 요구, 같은 존경, 같은 엄격성, 같은 자유로 양육되고, 같은 공부, 같은 유희에 참여하고, 그녀가 보기에 명백히 평등하게 생각되는 그런 여자와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어머니가 부부 생활의 물질적·정신적 책임을 아버지와 똑같은 자격으로 감당한다면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하여 영속적인 권위를 가질 것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주위에서 남성적 세계가 아니라, 남녀 양성적 세계를 느낄 것이다.

-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60쪽) -

‡ 밀의 여성주의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예속” (61쪽) -

‡ 석가모니의 연기 사상

-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또한 세 개의 갈대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하면 나머지 한 개도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 “잡아함경(雜阿含經)” (73쪽) -

‡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 베이컨, “뉴아틀란티스” (83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공정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동등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동등함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동등함이 있다. 그런데 동등함은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사람과 두 가지 사물을 포함한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사물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20쪽) -

‡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첫째,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둘째,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 (중략)...[인용자가 임의로 편집]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21쪽) -

‡ 롤스의 정의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122쪽) -

‡ 벤담의 형벌론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중략)...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123쪽) -

‡ 소로의 시민 불복종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이 없다.

- 137쪽 -

‡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 소외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의 운동을 대변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 마르크스, “자본론” (145쪽) -

‡ 유학자와 플라톤의 도덕주의

- 음악[樂]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풍습과 풍속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와 음악[禮樂]으로 이끌면 백성들이 화목했던 것이다. - “순자” -
- 지금 세속의 음악은 음란하고 슬프고 바르지 못한 소리이다. 그러나 한창 음악을 앞에서 연주할 때는, 관장(官長)은 그 하급 관리(下級官吏)를 용서해 주고, 가장(家長)은 자기 동복(僮僕)을 용서해 준다. 세속의 음악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옛 성인(聖人)의 음악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예악(禮樂)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인이 어찌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음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교화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시킬 수 없어서 천지의 화기(和氣)에 끝내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닮은 반면에, 그 반대의 것들은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일세. …(중략)… 음악을 통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지? 즉 리듬과 선법(화음)은 영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 들며, 우아함을 대동함으로써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또한 어떤 사람이 옳게 교육을 받는다면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네.

- 플라톤, “국가” (156쪽) -

‡ 엘리아데의 성과 속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160쪽) -

‡ 베블런의 과시 소비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중략)…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소비의 범주에 속하는 최신 품목들은 가장 극단적인 생계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나 그것을 소비하려고 든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168쪽) -

‡ 불노브와 하이데거의 거주론

- 인간이 자신의 공간에서 다시 그러한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인간 본질이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면, 인간은 이러한 중심을 더 이상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중심을 만들어 그 중심 안에서 스스로 정초하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어떤 공격에도 방어해야만 한다. …(중략)…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싸움에서 지쳤을 때, 돌아가서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평온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 불노브, “인간과 공간” -

- 거주함, 즉 평화롭게 됨이란 각각의 것을 그것의 본질 안으로 소중히 보살피는 평화 안에, 즉 자유로운 영역 안에 울타리 쳐진 채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이러한 보살핌이다. 이러한 근본 특성이 거주함을 그것의 전 범위에서 관통한다. - 하이데거,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170쪽) -

‡ 롤스와 싱어의 해의 원조론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략)…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렇게 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들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 - 롤스, “만민법” -
-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이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182쪽) -

‡ 갈통의 폭력과 평화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에게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중략)… 처방 또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처방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 처방이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83쪽) -

† 2019학년도 수능완성

‡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 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 ‘정당화될 수 있는’과 같은 단어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4쪽) -

‡ 밀의 ‘토론의 필요성’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인류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정신의 한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 밀, “자유론” (5쪽) -

‡ 규칙 공리주의의 ‘규칙의 세 가지 수준’

가장 세련된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세 가지 수준의 규칙들이 행위를 인도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해약을 끼치지 말라.”와 같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험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경험 규칙들은 그것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한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1차적 규칙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약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2차적인 갈등 해결 규칙들에 호소해야 한다. 이 규칙의 위계의 맨 꼭대기에는 최종적 규칙이라고 불리는 3차 규칙이 있다. 이 최종적 규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당신의 최선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라.”는 행위 공리주의의 원리이다.

-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 “윤리학” (11쪽) -

‡ 길리건의 배려 윤리

도덕 문제란 상충하는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갈등 상태에 있는 책임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고 양상보다는 상황적이고 담론적인 사고 양상이 요청된다. 이러한 도덕 개념은 배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도덕 발달을 책임성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고 살피게 되어 있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12쪽) -

‡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들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 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항을 통해 이 대립에 의해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중략)…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중략)…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13쪽) -

‡ 하이데거 ‘현존재의 끝남은 생물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게’ 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이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는 죽어서도 현존재와의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21쪽) -

‡ 인간 복제를 포함한 생물학적 조작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생물학적 조작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합의 예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자신을 산출한 자를 찾아내어 잘못을 따질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죄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 영역을 보게 된다. 점점 커지는 생물학적 기술의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의 예방만이 허용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30쪽) -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행위는 ‘소유 양식으로 말해지는가, 존재 양식으로 말해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은 그를 소생시키며 그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성장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상 사랑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내용의 오용된 표현일 뿐이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37쪽) -

‡ 유교 ‘부모에게 간하는 목적과 방법’

- 부모를 섬기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가 자식의 말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논어” -
 - 부모가 과실이 있거든 기운을 내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소리로써 간한다. - “예기” -
 - 만일 간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를 하여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 “예기” -
 -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하는 자식이 있다면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의롭지 않은 일에 당면하면 자식으로서 다투어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효경” -
- 44쪽 -

‡ 하이데거의 현대 기술 비판

현대의 과학 기술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탈은폐’의 방식은 일종의 ‘뒹달’로,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그러한 에너지는 퍼내어져 저장될 수 있다. 지구는 이제 한갓 광물의 저장고로서 드러난다. 이때 인간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보던 세계도, 그리고 사물이 자신이 창조된 위상으로 인해 절대자, 최고의 지배자, 그리고 성스러운 자를 지시하던 세계도 사라져 버렸다.

-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53쪽) -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 문명의 본질을 ‘뒹달’, 즉 몰아세움으로 이해한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을 의미하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은 자연을 에너지의 저장고로 규정하고, 자연을 ‘뒹달’해 자연에 저장된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하려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이데거는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자연 세계와 사물의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라고 하면서 대지 위에서 인간이 시(詩)적으로 거주하는 것, 즉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고향 상실의 참다운 극복’)을 제안한다.

‡ 테일러 우선성의 원리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 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방어의 원리,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방어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항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죽)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이지만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배적 정의의 원리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 59쪽 -

‡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 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78쪽) -

‡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그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9쪽) -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의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롤스, “정의론” (88쪽) -

‡ 마르크스의 매뉴팩처 비판

야만인이 모든 전쟁 기술을 개인의 책략으로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규모에서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도 지식과 판단력과 의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매뉴팩처에서는 그러한 노동력은 다만 작업장 전체를 위해서만 요구될 뿐이다.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이 한 방면에서는 확대되면서 다른 여러 방면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 부분 노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에 집적된다. 부분 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 과정에서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자기를 지배하는 힘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결과다. 이 분리 과정은(두 지식과 노동의 분리)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 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 마르크스, “자본론” -

*매뉴팩처(manufacture): 산업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도구, 작업장, 원재료 따위의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한 제도

- 95쪽 -

‡ 정약용이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

-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전방저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되지.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향을 짜게 되지.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라네. 안정복(조선 정조 때 실학자)은 이렇게 말했네. “수령이 부인과 첩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지 않고 자식들을 부임지에 오지 못하게 하고, 권문세가(權門勢家)를 섬기지 않고, 금 세공장이와 목수를 불러들이지 않고, 금은보화를 탐내지 않으면 가난한 고을이라도 재정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의복은 성근 베옷으로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하네. 아침저녁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에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해. 네 접시는 구운 고기 한 접시, 마른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젓갈 한 접시인데 이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네. 자신의 일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만 찾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경비를 함부로 쓰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면 백성의 재물을 빼앗게 되지 않겠나? 처음 부임하여 어리석게 재정을 마음껏 쓰다가 점차 줄이는 자가 많네. 그렇게 되면 아전과 백성들이 그 일정하지 못함을 비웃을 거야. 그러니 수령이 어떻게 재정을 절약하지 않을 수 있겠나?
- 정약용, “목민심서” (96쪽) -

‡ 예술의 상업화

문화 상품은 그 특정한 내용이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즉 이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상품이며 비즈니스일 뿐이다. 문화 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여기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 상품에서 ‘대중’은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자 부차적 존재일 뿐이다. ‘대중’은 척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래서 문화 산업은 대중들 자신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은 자율적 작품들이 남긴 잔재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중략)… 문화 산업 내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동질적인 특색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나아가 대중들을 획일화된 잘못된 총체성으로 통합되게 한다. 문화 산업의 대표이자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는 이전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대중들 앞에 등장하며 오락과 유희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 상품이 주는 유희와 허위적 욕구의 충족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저항 의식보다는 도피를 꿈꾸게 한다. 결국 문화 상품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문화 산업은 대중이 사회적 객체로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총체적으로 관리되는데, 이런 사회가 바로 ‘관리되는 사회’이다.

- 이수완, “아도르노와 대중음악” (103쪽) -

‡ 자기 과시 수단으로서의 소비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회 계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모호해지고 가변적인 것이 되어 가지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그 강압적인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장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 이상의 달성에 실패하여 평판이 실추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도 그렇듯 공인된 규범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중략)… 도시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할 필요가 생긴다.

- 베블런, “유한 계급론” (112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 사람들은 왜 굶주리는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개량 종자나, 비료나, 우물을 파고 물을 길는 데 필요한 기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부유한 나라에서 약간의 부를 가난한 나라들로 옮김으로써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중략)…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빈곤과 그에 수반하는 열악한 영양 상태, 나쁜 건강 그리고 죽음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부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개개인에게도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는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기아,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을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이 두 가정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칙이 옳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그러한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119쪽) -

‡ 칸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국가란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란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사회이다. 국가는 그 자체 뿌리를 지닌 줄기와 같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열강들의 상호 대립에서 엄청나게 커져 가는 신용 체계는 당장의 요구에는 항상 안전한 채무이지만, 위험스러운 돈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즉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국제가 된다. …(후략)… - 칸트, “영구 평화론” (120쪽) -

‡ 메타 윤리학의 주요 과제

메타 윤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개념들의 분석 혹은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분석에 관심을 둔다. 메타 윤리학자들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윤리 이론을 만들려고 애 쓰지 않는다. 그들은 도덕적인 개념 혹은 도덕적인 개념에 내포 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 분석에 집중한다. 메타 윤리학이라는 분석적인 사조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한 노웰 스미스(Nowell Smith)의 “윤리학”에서도 비슷한 논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도덕적 준칙을 고수해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특정한 도덕률을 고수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저서는 ‘좋은’, ‘옳은’, ‘해야 하는’ 등의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하키안,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9쪽) -

‡ 공맹의 성찰적 태도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 “논어” -
-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돌아봐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가 나를 예로 대하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어떤 일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 “맹자” -

‡ 칸트의 선의지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8쪽) -

‡ 칸트가 주장한 보편화 가능성

의무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은 불리한 결과를 염려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중략)… ‘진실하지 않은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라.’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서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구든지 진실하지 않은 약속을 해도 좋다고 나 자신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칙에 따른다면 결코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약속을 하라.’라는 나의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되자마자 스스로 파멸할 것이 틀림없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8쪽) -

‡ 아퀴나스의 자연법

첫째,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사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령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반대를 막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자연법과 관련된다. 둘째,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선들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수컷과 암컷의 결합이나 자식의 양육 등과 같이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것들은 바로 이 경향성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된다. 셋째,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경향성을 고려하는 것, 가령 인간은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지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이 경향성을 고려하는 다른 것들은 자연법과 관련된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19쪽) -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어떤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가 그 각자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그 가치는 다음 일곱 가지 여건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①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 ② 그것의 지속성, ③ 그것의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 그것의 근접성 또는 소원성, ⑤ 그것의 생산성, ⑥ 그것의 순수성, ⑦ 그것의 범위, 즉 그것이 적용될 또는 그것에 영향받을 개인들의 수. …(중략)…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균형이 쾌락 쪽에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20쪽) -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짐승에게 해당되는 쾌락이 인간의 행복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은 입맛대로 사는 동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그런 능력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의 발휘와 거리가 먼 어떤 것도 행복이라고 간주하지 않게 된다. …(중략)…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또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질이다. …(중략)… 덕의 목적 중 하나는 실천들과 개인적 삶 모두에게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22쪽) -

‡ 길리건의 배려 윤리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략)… 도덕은 대립되는 요구들을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함의 문제로 규정된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22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성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 원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인간만이 오로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의 특성은 동시에 인간은 자기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런저런 관계에 있어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23쪽) -

‡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 생명이 와서 태어난 인간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신체를 기르는 일에만 힘쓰는 것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하니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신체와 세상의 일을 버리면 참된 생명이 완전히 실현된다. - 장자, “장자” (31쪽) -
- 사람들은 죽음을 최고악이라 말하면서 두려워하다가도 죽음이 삶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고 죽음을 열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부재를 악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31쪽) -

‡ 하이데거의 죽음관

-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근본 신념 또는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세간적인 가치들이 허망한 것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지향했던 모든 궁극적 가치와 목적들이 헛된 것임을 드러낸다.
-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생성 소멸하는 세계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존재이다.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존재 성격을 실존이라 부르면서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말한다.

- 박찬국, “실존 철학의 죽음 개념” (32쪽) -

‡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며 빠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각별히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 그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의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며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려지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55쪽) -

‡ 보부아르의 여성주의

- 여성은 남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지만, 남성은 여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본질적 존재의 측면에서 비본질적 존재이다. 남성은 주체이고, 남성은 절대적 존재이다. 반면 여성은 타자이다.
- 영원한 여성성이란 하나의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인간 발달에서 자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는 여성이 본래 남성에게 예측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성이 본래 남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중략)… 여성은 생물학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희생자이다.
- 여성 억압적 삶의 정황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동등성을 위한 투쟁 및 경제적 독립에 있다. …(중략)… 현대 여성은 기꺼이 남성적 가치들을 접수하고, 그 위에서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위하고,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56쪽) -

‡ 밀의 여성주의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아무리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관습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정치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 두는 제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또 그런 방향으로 그릇된 생각을 심어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의 진로와 인간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경향이 그런 불평등한 권리의 구조를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기능과 위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인류의 절반에게 족쇄를 채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해도 과연 우리는 잃는 것이 전혀 없을까? 설령 그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얻을 기회를 봉쇄해 버리거나 남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불의는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셈이기 때문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예속” (57쪽) -

‡ 인(仁)의 실천 방안으로서의 효제의 의의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우애하면서 윗 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적으니, 윗 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는 아직 있지 아니하니라.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기는 것이니, 효도[孝]와 우애[悌]는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니라.”

- “논어” (65쪽) -

‡ 불교에서의 자비행과 효

선남자여, 중생의 은혜라는 것은 곧 처음 시작된 곳이 없어서 일체 중생이 5도(道)에 돌고 돌아 백천 겁을 지내는 동안 여러 번 태어나는 가운데 서로 부모가 되었다. 서로 부모가 되었던 까닭에 일체의 남자는 곧 자애한 아버지요, 일체의 여자는 곧 자비한 어머니이니, 옛날에 태어났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으므로 현재 부모의 은혜와 평등하여 차별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옛적 은혜도 오히려 갚지 못하였거늘 혹 망령된 업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모든 것을 어기고, 집착(執着)하는 까닭에 도리어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왜일까? 무명(無明)이 밝음을 덮고 가리어서 전생에 일찍이 부모였으므로 은혜를 갚아 서로 이롭게 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중생들은 어느 때라도 또한 큰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갚기 어려우니, 이러한 일을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 “심지관경” (69쪽) -

‡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의무 지우는 주체는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만 하고, 둘째로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한갓된 파괴의 성벽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88쪽) -

‡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줄 건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풀을 뜯은 농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꽃을 꺾음으로써 그는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생명에게 그릇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90쪽) -

‡ 밀의 표현의 자유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중략)…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전제하는 셈이 된다. 또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밀, “자유론” (105쪽) -

‡ 롤스의 정의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원칙은 1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이들 원칙은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 롤스, “정의론” (117쪽) -

‡ 베카리아의 형벌론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이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비록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다. 감각을 지닌 모든 존재는 습관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인간은 습관의 도움으로 말하고 움직이고 또 여러 욕구를 충족시킨다. 마찬가지로 도덕관념도 반복·지속된 인상을 통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9쪽) -

‡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 자체는 아무런 새로운 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는 노동 규범이 경제 영역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창출해냈다. 즉 노동을 소명으로, 은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아니 궁극적으로 유일한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규범에 심리학적 동인을 부여했던 것이다. …(중략)… 근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근대 문화 일반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직업 관념에 기초하는 합리적 생활 양식은 기독교적 금욕주의 정신에서 탄생했다.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39쪽) -

‡ 동양 사상가들의 예술관

- 음악이란 성인(聖人)이 즐겼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어질게 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풍습을 바로잡고 풍속을 순화시킨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예와 음악으로 이끌면 백성이 화목하였던 것이다. - “순자” -
- 인(仁)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질적인 내용은 손윗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다. 악(樂)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게 되면 아버이를 섬기고 손윗사람을 따르는 마음이 샘솟듯 생겨나게 되고, 한번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게 되고, 그만둘 수 없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을 구르고 손을 저으며 춤추게 될 것이다. - “맹자” -
-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지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 귀가 즐거이 여기는 것들, 입이 달게 여기는 것들, 몸이 편히 여기는 것들을 위하지 않으니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 “목자” (150쪽) -

‡ 엘리아데의 성과 속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걸으로 볼 때는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의 현실이 초자연적 실재로 변한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顯)이 되는 것이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53쪽) -

‡ 음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

자연적 욕망의 경우에 잘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만, 즉 지나친 쪽으로만 잘못할 뿐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양에 있어 자연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연적 욕망이란 결핍된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한 것을 넘어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폭식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노예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62쪽) -

‡ 하이데거의 거주론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이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것들 자신이 사물들로서 그것들의 본질 안에 초연히 내맡겨질 때에만 사방을 간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죽을 자들이 성장하는 사물들을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또한 성장하지 않는 사물들을 제대로 고유하게 건립함으로써 일어난다. …(중략)…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죽을 자들이 거주함의 본질을 항상 다시금 구한다는 사실에, 즉 죽을 자들이 거주함을 비로소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이 거주 본래적인 곤경을 아직도 바로 그 곤경으로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간의 고향 상실의 성립하고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고향의 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된다면, 죽을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한 말 건넬이다. -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163쪽) -

‡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론

-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는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 롤스, “만민법” -
-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지지 않는 것이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175쪽) -

‡ 2020학년도 수능완성[재탕이 많았음]

‡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자연법이란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 분유되어 있는 것이다. 신의 법이 우리에게 분유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고, 신의 통치 이성이 우리에게 분유되어 있는 것이 자연 이성이다. 그리고 신의 의지가 우리에게 분유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 욕구이다. ...**(중략)**... 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이다.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법이 있다. 첫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자기 보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욕구로서 암수 결합의 욕구, 자식 교육의 욕구가 있다. 두 욕구를 행위로 옮기는 규범과 원리들은 자연법에 해당된다. 셋째, 무지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법의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자연법은 자기 보존, 남녀의 결합, 자녀 양육,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과 관련된 것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19쪽) -

‡ 2021학년도 수능특강 (현행 교육과정 시작)

‡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성찰

여러분, 나는 숨을 쉬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철학에 종사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느 때 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안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 재산에서는 미덕이 생기지 않지만, 미덕에서는 재산과 그 밖에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신께서는 등에 역할을 하라고 나를 이 도시에 배정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온종일 여러분에게 내려앉아 여러분을 일일이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으라고 맡았습니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12쪽) -

‡ 이이가 강조한 성찰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한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행한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벌써 다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크게 용맹스러운 뜻을 펼쳐, 마치 한 칼로 밀동을 시원스레 잘라 버리듯,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한 남은 줄기마저 없게 하고, 때때로 깊이 반성하는 공부를 더 해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에 묻든 더러움을 한 점이라도 없게 한 뒤라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다.
- 이이, “격몽요결” (12쪽) -

‡ 유교의 대동 사회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직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직분이 있다.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흠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예기” (20쪽) -

‡ 불교의 연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잡아함경 2” (20쪽) -

‡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 옛날의 참된 사람[真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피하지 않았다. ... (중략) ... 옛날의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 (중략) ...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 “장자” (21쪽) -

‡ 아퀴나스의 자연법

신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 칸트의 도덕 법칙이 지닌 특징과 의의

-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강제)의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22쪽) -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한편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들의 지배에 달려 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종속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종속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다.
-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상 체계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다.
-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시키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23쪽) -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24쪽) -

‡ 장자의 죽음관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 “장자” (34쪽) -

‡ 플라톤의 죽음관

철인(哲人)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 플라톤, “파이돈” (35쪽) -

‡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배웠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비판하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우월한 계급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남성의 세계는 여성에게 초월적 현실, 하나의 절대처럼 보인다. 프레이저가 말하고 있듯이, “남성은 신(神)들을 만들고, 여성은 그 신들을 숭배한다.” 남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라도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길에서 거대한 조상(彫像)들을 만날 때, 그녀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손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 보부아르, “제2의 성” (57쪽) -

‡ 플라톤의 직업관

내 생각에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富)나 다수 또는 힘에 의해, 또는 이런 유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우쭐해져서는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숙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또는 동일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그런 경우에 내 생각에도 그렇지만, 자네한테도 이들의 이 교환이나 참견이 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네. - 플라톤, “국가” (67쪽) -

‡ 동서양의 정의에 대한 관점

- 맹자가 양혜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 맹자, “맹자” -
-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중략)…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 플라톤, “국가”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은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77쪽) -

‡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 Complex Equality[24학년도 수능특강])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들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79쪽) -

‡ 처벌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관점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80쪽) -

‡ 사형제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

-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해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 …(중략)…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 온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81쪽) -

‡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중략)…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주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면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인 여러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89쪽) -

‡ 사회 계약론의 등장 배경 (일반론)

사회 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한다는 주장이다. 사회 계약론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왕의 권리가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믿었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이 의문시되면서 사람들은 군주들도 동등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타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회 계약론은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지배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자연적인 혹은 신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복종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러한 의무 아래 우리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다. - 88~89쪽 -

‡ 맹자의 왕도 정치

-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니, 칠십 명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한 것이 그 예이다. “시경”에서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에 대해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
- 어진 정치를 실행하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어지거든 그때에 이르러서 정치와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 “맹자” (90쪽) -

‡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중략)…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
-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 로크, “통치론” (91쪽) -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만든 것이므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자연법 |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법으로 실정법의 토대가 됨.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님

‡ 역성혁명의 의미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으로, 왕조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역성’이란 왕조에 세습되는 성(姓)이 왕조가 바뀔으로써 통치자의 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혁명’이란 하늘의 뜻(天命)을 혁신한다는 의미이다. 왕은 천명에 따라 왕위에 오르는 것이므로 천명을 거스르는 사람은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역성혁명은 천명 사상과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92쪽 -

‡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93쪽) -

‡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의무 지우는 주체는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만 하고, 둘째로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122쪽) -

‡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
-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124쪽) -

‡ 유불도의 자연관

-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 “맹자” -
- 온갖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 “범망경” -
- 스스로의 덕을 소중히 품고 화합의 마음을 키우며 천지자연을 따르는 자를 진인(眞人)이라고 한다.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되 본심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자는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 “장자” (126쪽) -

‡ 유가의 도덕주의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만물이 흩어져 다르게 있으니 예(禮)가 만들어져 행해진다. 흘러 쉽이 없고 합치어 같게 되는 악(樂)이 그에 흥성한다. 봄에 만들고 여름에 자라는 것은 인(仁)이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의(義)이다. 인은 악에 가깝고, 의는 예에 가깝다. 악은 화(和)를 돈독히 하고 예는 분별하여 악으로 하늘에 응하고 예는 땅에 맞추니, 예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각기 그 일을 얻는다.

- “예기”, ‘악기’ (139쪽) -

‡ 목자의 비악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흙을 굽어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琴)과 슬(瑟)을 뜯고 우(竽)와 생(笙)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해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천과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 “목자”, ‘비악’ (139쪽) -

‡ 칸트의 미학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중략)… 순수하게 감정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정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칸트, “판단력 비판” (140쪽) -

‡ 베블런의 과시 소비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웅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내는 것이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부의 경쟁으로 표현된다. 이는 최소한 서구 문명사회만 두고 보아도 과시적 낭비의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면, 과시적 낭비 욕구는 사회의 산업 효율성 혹은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151쪽) -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의 원칙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하였다.

(U):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논증의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전제 조건이 지닌 규범적 내용으로부터 U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담론 윤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D):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들이 단지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게만 된다면,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164쪽) -

‡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 현실주의는 흡스적 전통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욕망을 제어할 국제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고,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국제 평화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내세운다. 세력 균형 이론은 서로의 힘이 균등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자제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세력 균형이 무너지, 즉 한쪽의 힘이 무너질 때 다른 한쪽은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국제 평화를 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 균형은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다른 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은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간의 주어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게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잘못된 제도나 구조는 국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등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 김정용, “국제 정치의 이해” (173쪽) -

‡ 갈통이 주장한 폭력의 종류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 (중략) ...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74쪽) -

‡ 싱어가 비판한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롤스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well-ordered)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 즉 질서 정연하게 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문화적 전통과 인적 자본, 노하우 그리고 흔히 물질적·기술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를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무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원조의 요건에까지 확장되는데, 이때 롤스가 의미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도록 기획된 사회이다. 무엇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롤스는 각 사회가 적절한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나 희소해서 질서 정연할 수 없는 사회는 - 한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가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현재 없는 나라에 사는, 기아나 영양실조 또는 지금 당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개인들의 곤경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177쪽) -

‡ 2021학년도 수능완성

‡ 싱어가 비판한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절제 있는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관계한다. 그는 건강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나 좋은 상태를 위해 진정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적절하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욕구하며, 이런 것들에 진정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즐거운 것들, 혹은 고귀함을 벗어 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을 넘지 않는 즐거운 것들을 욕구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즐거움들이 갖는 가치 이상으로 그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절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5쪽) -

‡ 장자의 제물론, 좌망, 심재

- 자연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있고, 저것도 이것입니다. 저것에도 옳다 그르다가 하나가 되고, 이것에도 옳다 그르다가 하나가 됩니다. 과연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까? 저것과 이것이 마주 선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을 ‘도의 지도리[道樞(*도추)]’라고 합니다.
*도추: 사물의 상대적인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대립을 넘어선 절대적인 도(道)의 경지
-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이성적 분별 작용[知]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를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 장자, “장자” (10쪽) -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또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11쪽) -

‡ 유전적 간섭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예방을 통해 치료한 환자는 미래에, 인격체로서, 그와 같은 출생 전에 이루어진 간섭에 대해서 자신의 유전적 소질이 프로그램화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누군가와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어떤 가상적인 심문도 없이 오직 제3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로소 이런 경우에 유전적 간섭은 인간 자연의 ‘기술화’라는 형식을 가지게 된다. 치료적 간섭과는 달리 이 경우 유전적 물질은 도구적으로 행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조작된다. 그 사람은 대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목표 설정에 따라 원하는 상태를 이끌어 낸다. 소질을 변화시키는 유전적 간섭은 ‘치료의 논리’, 다시 말해 합의를 가정할 수 있는 악의 회피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때, 적극적 우생학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적극적 우생학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한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의 인지된 경계 허물기가 프로그램된 인격체의 자율적 삶의 영위와 도덕적 자기 이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야만 한다.
-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25쪽) -

‡ 레건의 동물 권리론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한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확인되면 그는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 존재로서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레건, “동물의 권리” (26쪽) -

‡ 도덕성에 관한 길리건의 견해

여성과 남성은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르게 경험한다. 남성적 발달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separation)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적 정체감은 독립이나 개인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와 달리 여성들의 성적 정체감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나 개인화 과정이 완성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성(masculinity)이 독립을 통해 규정되고 여성성(femininity)이 애착 관계(attachment)를 통해 규정되므로, 남성적 정체감은 친밀성(intimacy)에서 위협을 느끼는 반면 여성적 정체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남성들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은 개인화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33쪽) -

‡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 소외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 세계의 가치 증대에 정비례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가 심해진다.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노동은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하고, 더욱이 노동이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비례해서 생산한다. ... (중략)... 노동자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그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면 낼수록 그 자신은 그만큼 무가치하고 시시한 것이 되고, 그 생산물이 문명적이 될수록 그는 더욱더 야만이 되고, 노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노동자는 무력하게 되고, 노동이 지적이 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지성은 결여된 것이 되어 자연의 노예가 된다.
-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초고” (39쪽) -

‡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은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된다. 완전 절차적 정의의 특징은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완전 절차적 정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런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드물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게임(gambling)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거의 모두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 롤스, “정의론” (46쪽) -

‡ 왈처의 복합 평등론

다원적 평등 체제는 전제와 정반대가 된다.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에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선택될 수도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평등한 관계에 있을 수는 있다.

-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왈처는 정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분배 기준과 절차, 그리고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안전과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 공직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기초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7쪽 -

‡ 루소의 사회 계약론

- 사회 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人身)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는 데 있다. 이때 그러한 하나의 결합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각자를 전체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 각 계약자의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의 도덕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 곧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
-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란 단 하나의 일반 의지만을 갖는다.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그 통치 원리도 명백하게 빛나게 된다. 이때는 이해관계의 혼란이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으며, ‘공동선’은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서 건전한 양식만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쉽게 파악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55쪽) -

‡ 싱어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 불복종은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민주주의적인 결정에 복종할 책무를 무시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 (중략)...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56쪽)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전통적인 윤리학은 ‘지금’과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용무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 늘 반복되는 전형적인 상황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 윤리 들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해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와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에게서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 (중략)...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63쪽) -

‡ 싱어 · 테일러 · 레오폴드의 자연관

-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는다는 것의 전체 조건이며, 그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자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싱어, “동물 해방” -
-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또 전체로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생존에 의존해야 하는 복잡한 그물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려는 목적론적 삶(생명)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
-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고, 그 반대는 그르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77쪽) -

‡ 유불도의 자연관

-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식구이다. - “성리대전” -
-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 줘서도 안 된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살아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 “숫타니파타” -
- 자기 마음을 담박하게 하고, 자기 기(氣)를 고요하게 하여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되 사사로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천하는 잘 다스려진다. 즉 천지도 나와 더불어 살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 “장자” (78쪽) -

‡ 공자와 순자의 예술관

-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않으면 예(禮)를 어떻게 하며,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 공자, “논어” -
- 선왕(先王)들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였다. 소리의 단순하고 복잡한 가락과 뽀족하고 둥그스름한 장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악한 기운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한다. …(중략)… 음악은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하므로 음악이란 천하를 크게 바로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다. - 순자, “순자” (85쪽) -

‡ 문화 산업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

- 오늘날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불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개개의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서조차 소비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문화 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들을 재생산하려 든다. …(중략)…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모든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들은 문화 산업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즉 문화 산업의 객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 체계의 원리이다. 문화 산업은 자신이 행하는 기만이 욕구의 충족인 양 소비자를 설득하려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문화 산업이 무엇을 제공하는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 호르크하이머 ·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86쪽) -

‡ 주거 공간에 대한 볼노브의 입장

- 세계의 중심을 ‘객관적인’ 의미에서 자기 민족의 거주지에 옮겨 놓고 그곳을 성스러운 지점으로 강조해 상징화한 신화적 견해는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진 공간의 중심이 사라졌어도 인간은 변함없이 그런 중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중심은 인간이 이 세계에 ‘거주’하는 곳, 그가 ‘집’으로 생각하는 곳, 그가 항상 ‘귀환’하는 곳이다.
- 집의 담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분한다. 외부 공간은 인간이 세계에 나가 활동하는 공간이고, 저항을 극복하고 적을 막아내야 하는 곳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다. 반면 내부 공간인 집은 인간이 혹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끝없는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정과 평화의 영역이고, 뒤로 물러나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에게 이 평화를 선사하는 것이 집의 최대 과제이다. - 볼노브, “인간과 공간” (92쪽) -

볼노브는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 세계의 구체적 중심이라고 본다. 과거 신화적 견해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주는 아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중심이 사라진 후 현대인들은 특별히 어느 곳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으며, 볼노브는 이를 현대인이 직면한 위협이라고 보았다. 볼노브는 이러한 위협 상황에서 인간은 더 이상 중심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심의 창조는 인간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즉 집을 피상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 집과 내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92쪽 -

‡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이성은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인간의 양심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침략적이며 악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상주의는 정치에서 힘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과 도덕에 의한 정치도 인간과 국가 모두가 이익의 상충·갈등보다는 이익의 조화·평화를 추구하며 공동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현실주의는 정치가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고 국가는 개인과 같이 타국을 지배하려고 하며, 따라서 외교 정책은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주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터내셔널리즘의 실현 혹은 국제 평화를 그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집착 혹은 힘으로 정의된 국가 이익의 추구가 정책 결정의 기초이며 도덕적 존엄성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힘의 추구하고 권력 투쟁이 필연적으로 세력 균형이란 결과를 초래하며, 세력 균형을 통해서 국제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상주의는 세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며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집단 안전 보장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강민규, '국제 정치에서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비교' (104쪽) -

‡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공법(公法)

모든 법적 체제는 그 안에 있는 인격들과 관련해 볼 때, 한 민족 안에서 인간들의 국가 시민법에 의한 체제[國家法], 상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법에 의한 체제[國際法], 인간과 국가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외적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 국가의 시민으로 보일 수 있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의한 체제[世界市民法]이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이념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무릇 이들 중 하나만이라도 타자에 대해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자연 상태에 있다면, 그것과 전쟁의 상태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겠거니와, 이러한 전쟁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 칸트, "영원한 평화" (105쪽) -

칸트는 평화 상태와 자연 상태를 구분하면서 평화 상태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언제나 적대 행위들이 발발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대 행위들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적대 행위들이나 위협을 중단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6가지 예비 조항과 3가지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으며, 영원한 평화와 관련하여 공법이 국가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퍼센트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출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는 해도, 그런 수정의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 새 옷이나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또는 집을 새롭게 꾸미지 못한다고 남들이 자신을 깔보지 않을까 싶어 돈을 쓰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소비할 좋은 이유가 생겼다. 이제 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싱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106쪽) -

싱어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외 원조를 위한 기부 단체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소득의 1퍼센트 아니 5퍼센트를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이 손상되는 일이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행복감을 위해서라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해외 원조를 위한 기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하였다.

‡ 2022학년도 수능특강 [대부분 재탕...]

‡ 2022학년도 수능완성

‡ 윤리학의 구분

- 도덕 철학(윤리 이론)은 도덕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와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의미한다. 도덕 철학은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대한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실천 윤리학은 낙태, 사형, 안락사, 혼전 성(性), 시민 불복종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문제들을 다룬다. -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 -
 -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론적이고, 논증의 논리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 한다. '의미론적'이란 단어와 진술의 의미를 말하고, '논리적'이란 결론이 근거로부터 도출되는가를 말하며, '인식론적'이란 지식을 의미한다.
 - 기술 윤리학은 개인의 현실적인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그가 가진 도덕 판단 또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도 탐구될 수 있다고 본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4쪽) -

‡ 이황의 경(敬) 공부

-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진실로 경(敬)으로써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성(性)을 보존하여 체(體)를 확립할 수 없다. 군자의 공부는 이 마음이 발(發)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을 주로 하여 존양(存養)하는 공부를 하고, 이 마음이 이미 발하였을 때에도 또한 경을 주로 하여 성찰(省察)을 공부하는 것이다.
- 경(敬)은 모름지기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거처하면서 마주 건너 상제를 모신 듯이 해야 한다. 발걸음을 무게 있게 하고, 손가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 문을 나가서는 손님을 맞듯이, 일을 받들 때는 제사를 모시듯 두려워해야 한다.
- 경(敬)은 닭의 울음에 깨어나면 마음을 조용히 정돈하고, 지난 허물을 반성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잡아 밝기를 태양 같이 해야 한다. 태도를 엄숙하게 하고, 걸모습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비워 밝게 하고, 조용하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

- 이황, “성학십도” (5쪽) -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만약 몸 전체가 분해된다면, 영혼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감각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유기체 안에 있으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감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몸이 현재의 모습과 더 이상 같지 않을 경우에도, 영혼은 감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비물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 에피쿠로스,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 (18쪽) -

‡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

- 사고하는 인간은 다른 생명 의지를 대할 때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똑같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속에서 체험한다. 그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손상하는 것,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덕의 사고필연적 절대 원리이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든 동식물의 생명이든 생명을 생명으로서 신성시하고 곤궁에 빠진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에만 윤리적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윤리는 사랑, 헌신, 동정, 공동의 기쁨, 협력 등으로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 슈바이처, “나의 생애와 사상” -

-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을 주장하면서, 윤리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히 확장된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중략)…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에 대한 책임은 우선 자기 안에서 생명의 의지를 체험하고 그 자체로 그것을 존중하고 나서, 이것을 자기 주변의 다른 존재에게도 부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동등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

- 변순용, “책임의 윤리학” (25쪽) -

‡ 도덕성에 관한 길리건의 견해

여성들의 도덕 판단에 전제된 인습들이 남성들의 도덕 판단에 전제된 인습들과 다르듯이, 여성들의 도덕 영역을 규정하는 방식은 남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의 도덕관에서 설명하는 남성들의 도덕 발달은 평등과 상호성의 논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보살핌과 책임의 문제로 구성하는 여성들에게 도덕 발달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변화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보살핌의 윤리에 깔린 논리는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의 논리이며, 정의의 입장에 전제된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와는 대조된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33쪽) -

‡ 순자의 직업관

-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금과 재상과 신하들과 여러 관리들은 각각 그의 직분으로 들은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들어보지 않은 직분 이외의 일은 들으려 애쓰지 않는다. 각각 그의 직분으로 본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본 일이 없는 직분 이외의 일은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이 들은 일들과 본 일들이 진실로 그들 직분에 들어맞기 때문에 비록 으스스하고 외진 곳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직분을 공경히 지키고 제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 모두가 그들의 임금에게 감화를 받는다. 이것이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징조이다.
- 나라가 손상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소인들이 백성들 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백성들에게 취해서는 안 될 교묘한 명분을 취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손상시키는 재난이 된다. 큰 나라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이익을 좇는 것을 좋아하면 나라를 손상시키게 된다. 임금이 음악과 여색, 누각과 정원 같은 것들을 만족할 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나라가 손상된다. - 순자, “순자” (39쪽) -

‡ 롤스가 말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 자본주의의 차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 자본주의의 차이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은 둘 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것들이 아주 똑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이것이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부와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의 작은 부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까지도 통제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한다. 이와 달리 복지 국가 자본주의는 작은 계급이 생산 수단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허용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소위 각 기간의 마지막에 덜 가진 이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각 기간의 시작점에서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교육과 숙련된 기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그것을 피한다. 그 의도는 단순한 사고나 불운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이것도 해야 하지만), 모든 시민이 적당한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46쪽) -

‡ 칸트와 베카리아의 사형제 존폐론

-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킨다.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 노역형의 상대적 이점이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형자는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중략)… 구경꾼은 불행한 수형자의 무감각해진 마음 대신 자신의 현재 감수성으로 사태를 판단한다. 구경꾼에게 수형자의 모든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47쪽) -

칸트는 살인을 했거나 그러한 범행의 공범자들은 모두 공적 법칙(법률)에 의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의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의 조항,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지고 또 조건이 평등하면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양도는 전적인 것이므로 결합도 더할 수 없이 완전한 것이 되고 구성원은 누구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된다. …(중략)… 각자는 자신을 전체(全體)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은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 행위는 대신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를 만든다. 이처럼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되는 이 공적 인격을 이룸하여 옛날에는 도시 국가라 불렀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 체라 부른다. - 루소, “사회 계약론” (54쪽) -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회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반은 일반 의지이고, 그 내용은 각자가 신체의 능력과 힘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도덕적·집합적 단체에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곧 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결합체인 공적 인격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 국가의 입법권의 범위에 대한 로크의 입장

입법권은 그것이 1인의 수중에 있건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있건, 상시적으로 존재하건 또는 수시로 존재하건 상관 없이,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입법권에 존재한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한다. 이는 그 법률이 사건에 따라 다르지 않고 부자나 빈자, 궁정의 특권층이나 시골의 농사꾼에게나 단일한 규칙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법률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인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창안되어야 한다.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가 표명하건 아니면 그들의 대표자들이 표명하건, 인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입법부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정부 또는 적어도 인민들이 수시로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유보해 두지 않는 정부에서만 제기된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이전해서는 안 되며, 또 이전할 수도 없다. 또한 인민이 그 권력을 설정한 곳 이외의 다른 곳에 설정해서는 안 되며, 또 설정할 수도 없다. - 로크, “통치론” (55쪽) -

로크에 따르면 사회가 입법부에 위임한 신탁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둘째,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째,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만일 입법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네 가지 신탁의 한계를 넘어서면 입법부는 입법부에 맡겨진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되어 그 권력이 인민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인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싱어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이전에는 관료들에게만 맡겼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거나, 너무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재고를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중략)…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56쪽) -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담론 규칙은 논증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의 예외 없는 포합이라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참여자 영역을 규정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논증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논증을 주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담론 규칙은 논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평등한 참여권이 어떤 미묘하고 은폐된 억압 없이, 균등하게 실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전제를 요구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99쪽) -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으며, 합의 당사자들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타당성에 기반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타당성은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성은 행위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장된 내용이 객관 세계에 실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성은 행위가 행위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 세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가에 관한 것이며, 진정성은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로 행위자들이 자신의 주관 세계를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행위자들이 이런 세 가지 타당성을 기준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를 발현하게 되며, 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상호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

현실주의의 입장을 지닌 모겐소는 현실주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치와 사회는 모두 인간 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2) 국제 정치는 이해관계 및 권력과 관련하여 규정되며, 국가는 국익에 반하는 정치적 동정심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3) 정치적 행위는 그것이 국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도덕적 원리 및 윤리의 영역은 정치 영역과 분리된다. (5) 국가의 도덕적 열망은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적 법칙과는 다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은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국가의 열망에 의해 전개될 수 없다.

- 쿠르베타리스, “정치 사회학” -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제 관계를 권력, 국익, 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권력 투쟁 관계로 본다. 또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국제 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제 정치에서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분쟁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 증진만을 추구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우의, 신뢰, 존중과 같은 도덕적 요소는 작용할 수 없으며, 도덕성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국제 관계의 세력 균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정당화하거나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협력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 104쪽 -

‡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

평화 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연법에 의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국제법에 의해 말할 수 없다. …(중략)…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평화 연맹은 국가의 어떠한 권력 취득에도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한 국가 그 자신과 동시에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보장하는 데에만 상관하고, 그러면서도 이 국가들을 공법과 공법 하에서의 강제 사항에 복속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연방적 통일의 중심점을 제공하여 다른 국가들을 그 통일에 동참하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에 맞게 국가들의 자유 상태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의 더 많은 결합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칸트, “영원한 평화” (105쪽) -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으로 각 국가의 시민적 헌정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하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제시하였다. 칸트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항구적인 국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이며, 이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 연맹으로 오로지 한 국가와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의 국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주권 국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행해서는 안 되며,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히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롤스, “만민법” -
- 불평등은 종종 상대적인 것이지만 절대 빈곤국의 빈곤은 다른 어떤 국가의 부와 비교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다. 절대 빈곤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분명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106쪽) -

‡ 동양 사상에 나타난 부부 간의 윤리

무릇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알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퇴계선집 40권 興安道孫 庚申” (58쪽) -

† 2023학년도 수능특강

‡ 아퀴나스 · 칸트에 대한 싱어의 비판

나는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피하였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 친절할 경우 인간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것이 예컨대 아퀴나스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하는 참된 이유라면, 이는 전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이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 싱어, “동물 해방” (123쪽) -

‡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 생명 외경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느 동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일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해야 한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중략)… 언어 낸 결과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수술하고 약을 주고 병균을 주사하는 사람은 이 잔인한 행위가 가치 있는 목적을 수반한다고 일반적으로 유전자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이나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실제로 필요 불가결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
- 우리가 생명 중심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자연계와 생명을 볼 때, 우리는 각 생명체의 매 순간 존재를 예리하고 명확하게 인식한다. 특정 유기체에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가 개체로서 그 유기체와 공유하는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행동과 내적 과정은 그들의 선의 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우리의 선의 내용과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수단이 그들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 실증되는 목적론적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근본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124쪽) -

‡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

우리에게 환경 윤리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이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생태에 역효과를 낳을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보다 넓은 관점인 동일시를 통하면, 환경 보호 덕분에 자기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 네스 외, “산처럼 생각하라” (125쪽) -

‡ 맹자의 자연관

- 군자는 만물(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금수초목)을 사랑한다. - “맹자” -
- 사람을 먹여 주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처럼 접대하는 것이고, 사랑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여기며 기르는 것이다. - “맹자” (126쪽) -

‡ 와일드의 예술관

-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은 닭은꼴이라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은 거울이라기보다는 장막이다. 예술은 어떤 숲에도 피지 않는 꽃이다. 어떤 숲에서도 울지 않는 새이다. 예술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내고 파괴한다. 예술은 주홍빛 실로 하늘에서 달을 끌어오는 것이다.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산문집” -
- 심미주의는 평범한 것들에 색채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모든 사물들 사이에는, 감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상관관계처럼 미묘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공부해 왔던 사람들만이,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계지요. - 와일드, “와일드가 말하는 오스카” (139쪽) -

‡ 정약용의 예술관

성인은 조석으로 음을 듣고 마음을 씻어 혈맥을 고동치게 함으로써 화평한 뜻을 유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악(樂)이 완성됨에 따라 그 효과로 모든 관원이 성실하게 화합하고 덕으로 겸양했으니 인간은 반드시 음악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알맞지 않은가. …(중략)… 그러므로 예(禮)와 악(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중략)… 음악을 진작함으로써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를 그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제작물 자체가 자신의 객관적인 속성에 따라 그러한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제작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관찰력과 상당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 ...**(중략)**...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생활에서조차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노린다. 개개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이다. 어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든 언뜻 보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각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처럼 재생산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아도르노 외, “계몽의 변증법” (142쪽) -

‡ 지멜이 말하는 유행의 본질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언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 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 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 지멜, “지멜의 모더니티 읽기” (149쪽) -

지멜은 유행이 누구나 가는 길로 가려는 욕구, 즉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유행에 휩쓸리기 쉽다고 보았다

지멜 |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로 사회는 개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유행도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봄

‡ 거주에 대한 하이데거의 주장

우리의 위협스러운 시대에 거주함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사람들은 언제나 주택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주택 건설과 공급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 우리는 거주의 본래적인 문제를 아직도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 상실을 숙고하자마자 고향 상실은 이미 더 이상 서글픔이 아니다.

-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

‡ 2023학년도 수능완성

‡ 메타 윤리학의 목적과 과제

메타 윤리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즉 도덕적인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의미론적’이라는 말은 단어와 진술의 의미를 지시한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 논의의 결론이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제기한 근거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논의에 나타난 진술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인식론적’이라는 말은 지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메타 윤리학의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덕적 신념이 참이나 혹은 거짓이나를 보일 수 있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과제는 의미론적인 문제이고, 둘째 과제는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이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4쪽) -

‡ 이이의 수양론

신이 생각건대, 경건[敬]이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제 경건에서 학문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취하여 ‘수렴’이라는 제목을 붙여 소학의 공부에 해당시켰습니다. ...**(중략)**...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무게가 있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 배워도 배운 것이 든든하지 못하다.” 군자가 방 안에 거처하면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선하면 천 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응하는데, 하물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답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놓아 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 이이, “성학집요” (5쪽) -

‡ 맹자의 인간 본성론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그에게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자이다. 그 임금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네 가지 단서가 나에게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전부 확충할 줄 안다면 마치 불이 막 일어나듯 하고 썩이 비로소 흘러내리듯 할 것이다. 확충할 수 있다면 세상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조차 섬기지 못할 것이다.

- “맹자”, ‘공손추 상’ (10쪽)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 사단을 제시하였다. 사단은 타고난 마음으로 인간의 본심이며, 잠재성을 지닌 것이다. 맹자는 인의예지의 사덕을 본성으로 보았으며,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이 발현된다고 보았다. 맹자는 통치자가 인의의 본성을 바탕으로 다스릴 때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칸트의 도덕 법칙

- 정언적 명령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 준칙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는 것이다.
- 최상의 실천적인 법칙이,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정언적 명령법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림으로써 의지의 객관적인 원칙을 이루고, 보편적인 실천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천적 명령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인격 안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까지도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 하라.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1쪽) -

‡ 장자의 죽음관

노자(老子)가 죽었을 때 진실(秦失)이 문상(問喪)하러 갔는데, 곡을 세 번만 하고는 나와 버렸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그분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친구지.”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문상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되지. 처음엔 나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노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으니. 아까 문상하러 들어가 보니 늙은이들은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호느끼고 있더군. 이처럼 모인 사람들이 떠들고 우는 것은 노자가 원하는 바가 아닐 걸세. 이렇게 하면 하늘을 피하는 것이요, 사물의 본성을 배반함이지, 받은 바를 잊어버리는 것일세.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을 피하려는 데 대한 벌’이라고 했지. 어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어찌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순리이기 때문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의 매듭에서 풀려나는 것[懸解]’이라 했네.” - 장자, “장자” -

‡ 인간 복제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복제 인간이 - 아직은 가설적이지만 -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혹은 안다고 믿고) 타인들 역시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안다는 (혹은 안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기와 타인의 이러한 선(先)지식은 그가 ‘그 자신’됨의 자발성을 마비시킨다. 세포를 증여해 준, 이미 알려져 있는 -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 원형은 모든 기대와 예언, 희망과 공포, 목표 설정, 비교, 성공과 실패 및 충족과 실망의 기준을 그의 세포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되어 가는 자가 서서히 구축해 가는 지식이 아니라, 기존의 원형이 가지고 있던 완료된 지식에서 얻어 낸 것이다. 이러한 사이비 지식은 이른바 미리 설계된 인간 주체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도의 직접성,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 느끼는 삶의 놀라움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현실적인 지식과 참된 진리가 아니라, 사이비 지식과 거짓 진리일 뿐이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25쪽) -

‡ 싱어의 동물 해방론

종 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중략)…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interests)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중략)… 만약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또한 의심해서는 안 된다.

- 싱어, “동물 해방” (26쪽) -

‡ 칸트의 성 윤리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性愛)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양자 각각은 자연목적이다. …(중략)… 법 이론에서 증명된 바는, 인간은 두 인격이 교호(交互)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 없이는, 이러한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러한 향락과 관련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한낱 실추가 아니라) 모독이 되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러한 향락에 대한 충동을 육체적 쾌락이라고 (단적으로 환락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쾌락은 부정(不貞)이라 일컫고,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충동과 관련된 덕은 정숙(貞淑)이라고 부르며, 무릇 이 정숙은 응당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표상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33쪽) -

‡ 국가의 기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입장

-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善]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좋음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가말로 으뜸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이다. …(중략)…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며, 이전 공동체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54쪽) -
-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중략)…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것을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하며, 리바이어던은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 낸다.
- 홉스, “리바이어던” (54쪽) -

‡ 로크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중략)… 정치권력은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만든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소유를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든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즉흥적 법령이 아닌 국민에게 공포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에서는 법의 집행을 위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공동체의 안보를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로크, “통치론” -
- 사회 계약의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의 조항,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지고, 또 조건이 평등하면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사회 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 루소, “사회 계약론” (55쪽) -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국가에 신탁으로 맡겨진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회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반은 일반 의지이고, 그 내용은 각자가 신체의 능력과 힘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도덕적·집합적 단체에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즉 루소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결합체인 공적 인격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았다.

‡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진지하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며,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중략)…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시민 불복종이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중략)…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56쪽) -

‡ 하이데거의 기술론

기술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기술은 발굴함의 한 방식이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을 위한 완전히 다른 영역이 열릴 것이다. 기술은 스스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을 발굴하는 것이다. …(중략)… 현대 기술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탈은폐’의 방식은 일종의 ‘담달’로,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그러한 에너지는 퍼내어져 저장될 수 있다. 지구는 이제 한갓 광물의 저장고로서 드러난다. 이때 인간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보던 세계도, 그리고 사물이 자신이 창조된 위상으로 인해 절대자, 최고의 지배자, 그리고 성스러운 자를 지시하던 세계도 사라져 버렸다. …(중략)… 현대 기술 속에 숨어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62쪽)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

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될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 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통념을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으며,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재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 밀, “자유론” (71쪽) -

‡ 테일러의 생명 중심적 관점

생명 중심적 관점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 및 동일한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둘째, 인간은 다른 모든 종들과 함께 상호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각 생명체가 잘 살거나 잘못되는 기회뿐 아니라 그 생명체의 생존도 환경의 물리적 조건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넷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77쪽) -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 윤리가 흙, 물, 식물과 동물 같은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지 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중략)…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를 생태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는 사람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78쪽) -

‡ 벤야민의 대중 예술론

복제에서 빠져 있는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을 우리는 ‘분위기(Aura)’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 시대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의 분위기이다. 복제 기술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한다. 복제 기술은 복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일회적 산물을 대량 제조된 산물로 대체한다. 복제 기술은 수용자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그 복제품을 현재화한다. 이 두 과정, 즉 복제품의 대량 생산과 복제품의 현재화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것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중략)…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의 여러 방법이 생겨남에 따라 예술 작품의 전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예술 작품의 양극적인, 즉 의식적 가치와 전시적 가치 사이의 양적인 변화는 원시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질적 변화로 바뀌었다. 마치 원시 시대에서는 절대적 역점이 의식적 가치에 주어짐으로써 예술 작품이 마법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절대적 역점이 전시 가치에 주어짐으로써 예술 작품은 전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상체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진과 영화이다.

- 벤야민,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86쪽) -

‡ 의복에 대한 베블런의 입장

모든 계급에 걸쳐 의복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품위 있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상식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걸친 의복이 사회적 관습이 정해 놓은 복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없이 뼈저리게 초라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편의 물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상당히 많이 줄이더라도 체면 유지를 위해 낭비적 소비를 하겠다는 물품 중에서 다른 어떤 소비품보다 의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주 추운 날씨에 멋있게 보이려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복의 상품 가치는 대부분 착용의 기계적인 유용성보다는 유행성, 즉 상품이 지닌 명성에 있다. 의복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고차원적이거나 정신적인 욕구이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92쪽) -

‡ 엘리아데의 종교관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실존의 큰 부분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발하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런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신화적 이미지 및 형상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태고의 실존적 상황, 특히 위기의 상황이 낳은 결과이다. 이 때문에 무의식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다. - 엘리아데, “성과 속” (93쪽) -

엘리아데는 공공연히 비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 존재의 근원에는 종교적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스스로를 비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와 신화는 그들의 무의식의 어둠 속에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종교인이라고 칭하는 인간도 내면 깊이 생의 종교적 비전을 회복할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가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중략) ...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99쪽) -

하버마스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는 실천적 담론 원칙,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은 타당한 규범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어떤 강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화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다.

‡ 모겐소의 국제 관계론

•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이들이 가진 권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주인이길 원하는 욕구와 때로 노예일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로 권력이 가진 도덕적 측면, 즉 하나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갖는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또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치사상의 역사는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역사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동시에 도덕적 동물이다. - 모겐소, “과학적 인간과 권력 정치” -

• 주권 국가들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주요 동력이 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국제 무대의 권력 투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회 세력의 자기 조절 장치, 즉 세력 균형이다. 나머지 하나는 권력 투쟁에 대한 규범적 제한인데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 그것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 장치 가운데 어느 것도 권력 투쟁을 평화로운 범주 내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 같지 않다. -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104쪽) -

모겐소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정치적 동물인 동시에 도덕적 존재라고 보았으며,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 정치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세력들 간의 대립이므로 세력들 간의 균형을 통해 국가 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며, 국가의 이익이 도덕성과 충돌할 때 도덕성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갈통의 평화 이론

폭력은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짓점에서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도 쉽사리 전달된다.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 그리고 직접적 폭력은 장기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고,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이러한 삼각형적 증후군은 마음속에서 문화적 평화가 다양한 세력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협력 활동과 우정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직접적 평화를 낳는 평화의 신드롬과 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악한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고결한 삼각형이며 또한 자기 강화적이다. 이 고결한 삼각형은 동시에 세 군데의 꼭짓점에 대한 작업에 의해 획득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변화가 자동적으로 다른 두 군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는 가정되지 않는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5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 윤리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좋음과 나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는 ‘나’와 ‘너’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법칙, 보편화 가능한 판단, 불편부당한 관망자 혹은 이상적인 관찰자의 입장, 그것을 무엇이든 부르든 간에 그러한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모두가 세계의 모든 이의 복지에 똑같은 책임을 가진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원조의 책무에 찬성하는 논변이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106쪽) -

싱어는 윤리적 판단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 자신의 필요, 요구, 욕망이 내가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필요, 요구,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보았다. 싱어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 최소한의 의식주와 보건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원조 주체나 원조 대상 모두의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 2024학년도 수능특강

‡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오후, 당시 아테네에서 존경받던 장군 라케스를 만났다. 라케스는 용기 있는 자가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쟁터에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라케스, 참된 용기란 무엇인지 말해 주겠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용기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용기가 있으면서도 전쟁터에서 후퇴한 경우나 후퇴하지 않았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경우를 발견했다. 그는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은 스파르타군은 매우 용맹스러웠지만 계속 후퇴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적의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여 승리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후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라케스가 지금까지 막연히 믿어 왔던 잘못된 상식을 고쳐 주었다.

- 플라톤, “라케스” (11쪽) -

‡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만약 사회 계약으로부터 본질적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중략)…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91쪽) -

‡ 롤스가 정의(定義)하는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롤스, “정의론” (93쪽) -

‡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진짜 예술을 가짜 예술에서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다. 예술의 감염성(感染力)이 그것이다. 만일 사람이 남의 작품을 읽고 듣고 보고 한 결과, 자신이 그 작가와 공감(共感)을 하고 또한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경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다. 그와 반대로, 대상이 아무리 시적이거나 진짜를 닮았거나 효과적일지라도, 아니면 흥미를 돋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139쪽) -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작에서 과거와 현재 예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조건과 좋은 예술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사회의 종교적 자각(사회 구성원들이 도달한 최고의 선)에 입각한 좋은 예술만을 인정하고 미래의 예술은 좋은 예술을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은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 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일지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떤 형상이 어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리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연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0쪽) -

* 2025학년도 수능특강에서 삭제됨.
** “시학”에 없는 말이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에서 정오표로 삭제됨.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방은 예술이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모방을 넘어 대상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한층 돋보이게 하는 능동적인 모방을 의미한다.

‡ 바슐라르의 거주론

- 인간은 성급한 형이상학이 가르치듯이 ‘세계에 내던져지기’에 앞서, 집이라는 요람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몽상 가운데서는 집은 언제나 커다란 요람이다. 구체적인 형이상학이라면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옆으로 밀쳐놓을 수 없다.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
- 고향이라는 것은 공간의 넓이라기보다는 물질이다. 즉 화강암이나 흙, 바람이나 건조함, 물이나 빛인 것이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몽상을 물질화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꿈은 적합한 실체를 얻는 것이며,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 색깔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바슐라르, “물과 꿈” (150쪽) -

바슐라르는 인간은 집에서 사는 가운데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거주하면서 몽상하고 그 속에서 존재를 체험한다. 즉 집이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공간은 존재를 보호하는 경계선 안에서 존재를 응축하게 된다. 그래서 바슐라르는 집을 인생의 요람이라고 말한다.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내가 일반 법칙이 될 것을 바라는 어떤 준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규정적으로 명하는 대신에, 나는 보편성 주장의 논의적 검토를 목적으로 나의 준칙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무게 중심은 각자가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나는 논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적으로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 소통적이라 부른다. 이때 매번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간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언어적 협의 과정의 경우 행위자들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각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주장,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및 진실성 주장을 제시한다.

- 하버마스 -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규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담론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행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해석, 주장, 권고, 정당화 등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문제 삼거나 반박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화자들은 행위자로서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바람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하고, 행위자로서 명령하거나 저항하고,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약속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해명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164쪽 -

‡ 현실주의의 특징

현실주의는 국가주의, 생존, 자조를 핵심으로 한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경계 밖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국제 정치는 주권 국가들의 개별적인 집합 위에 그를 가로지르는 중심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다. 즉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치의 기본 구조를 그 안에서 독립적인 개별 주권 국가들이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그보다 상위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의 구조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생존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본다.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국가 이익은 생존이다. 국가들은 경제, 환경, 인도주의와 같은 다양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면 다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타국이나 국제 연맹 혹은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 제도에 위임하는 것을 신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만약 약소국가의 생존이 패권 국가 혹은 강대국의 연합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은 힘을 합쳐 공식적 동맹을 형성하고 상대의 힘을 견제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세계 정치론” (173쪽) -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은 반드시 완전한 혼돈이나 무법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 정치의 영역이 중심적인 권위의 부재로 특징 지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세력 균형의 기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국가나 국가의 연합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이르지 않는 힘의 균형 상태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 국제법에 관한 칸트의 견해

국제법은 공법으로서 그 자체 개념 속에 각 국가에 그의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 의지의 공개적 천명을 포함하며, 이러한 법적 상태는 어떤 계약에서부터 귀결되어야 한다. 그 계약은 반드시 강제법에 근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전에 언급된 국제 연맹에서처럼 자유롭고 지속적인 연합의 계약일 수 있다. 서로 다른 (물리적 이거나 도덕적) 인격체를 적극적으로 한데 묶는 어떤 합법적인 조건이 없다면, 있는 것은 오직 사적인 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나 있게 될 상황이다.

- 칸트, “영구 평화론” (175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의심할 여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 바로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의 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 친화성을 고려해 보자. 유럽계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전에 가난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177쪽) -

싱어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변을 정리하였다. 첫째, 만약 다른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은 나쁘다. 셋째,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절대 빈곤이 있다. 싱어는 이러한 논변을 전제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 절대 빈곤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24학년도 수능완성

‡ 이황이 말하는 성찰의 중요성

선비는 세상에 나가 관직을 하든지 집 안에 가만히 은거하든지, 때를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못하든지,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닦고 올바른 의리를 행할 따름이다. 스스로 높은 곳에 처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서둘러 나서지 않아야 하며, 모든 일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용감하게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근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다. 따라서 예전의 선비들은 공부에 대해 흠어지고 해이해져 놓아 버린 마음, 즉 방심(放心) 상태를 반드시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부는 하나를 주로 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야[主一無適(주일무적)] 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삼가야[戒愼恐懼(계신공구)] 한다.

- 이황, “함양과 체찰” (5쪽) -

이황은 공부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며 성찰이 있어야 참된 공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황은 유교 가르침의 핵심을 학식을 넓혀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는 함양(涵養)과 몸소 자세히 살피고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체찰(體察)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심성을 올바르게 갈고닦는 것과 통한다고 보았다.

‡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며,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 참된 사람(眞人)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옛날의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피하지 않았다. 옛날의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道)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 “장자” (10쪽) -

‡ 도덕 법칙에 관한 칸트의 견해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 전체에게, 단지 우연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1쪽) -

‡ 롤스가 말하는 정의 원칙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도 부정의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이러한 우연성을 다소간 한정되고 특전을 가진 계층에 속하게 되는 귀속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임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회 체제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변적인 질서가 아니며 인간 행위의 한 양식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두 원칙은 운명의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방식이며 다른 점에서 불완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정의롭다.

- 롤스, “정의론” (46쪽) -

롤스는 천부적 자질이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임의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 국가의 기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입장

-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이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다시 말해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것—행복—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이다. …(중략)… 여러 마을로부터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는 국가인데, 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전적인 자족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중략)…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운 때문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국가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 나는 인간이 다음 지점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의 저항력이,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때 이 자연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인류는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다만 존재하는 힘을 합하고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응집을 통해 여러 힘을 모아 저항력을 이겨 내고, 하나의 동력으로 힘을 작동시켜 일치협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중략)…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루소, “사회 계약론” (54쪽) -

‡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

- 공통 권력은 그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방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의 모든 인격을 떠맡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은 만인 상호의 신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주권자와 어느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 측에서 신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주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는 본질적이며 분리가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주권자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양도될 수 없다.

- 홉스, “리바이어던” -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중략)…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중략)…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리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 로크, “통치론” (55쪽) -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주권자로서 통치자는 자신과 분리할 수도 없고 또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며, 주권은 계약의 주체, 곧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국가에 신탁으로 맡겨진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로크는 국가 권력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권 등으로 분할된다고 주장하였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당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당한 정도에 달려 있다. …(중략)…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롤스, “정의론” (56쪽) -

롤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부당한 법이나 정책이라도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따라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법과 정책의 부당한 정도에 달려 있으며,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 즉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의한 법을 변혁하기 위해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테일러의 생명 중심적 관점

동물과 식물이 그들의 중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선을 실현하는데 이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독수리의 시력과 비행 능력이 인간보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닌 것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과 합리성이 그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 후자의 주장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 이 숙고의 결론은 고전적인 인본주의의 윤리적 이상이 인간 생활의 표준으로 아무리 고무적이고 감탄스럽더라도 그 관점은 인간 이외 존재보다 인간의 본래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77쪽) -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테일러는 이러한 주장이 마치 독수리가 인간보다 시력과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독수리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존재의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의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철학적 가치이다. 대지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목적을 초월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략)…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78쪽) -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자체가 갖는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지를 오직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 반대하였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이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예술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한 수단이며 따라서 진보, 즉 인류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수단이다. 언어는 지금 생존해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前)세대와 동세대의 선구자들이 경험과 사색으로 알아낸 일들을 모조리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예술도 지금 살아 있는 최근 시대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현재의 뛰어난 선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모조리 경험시켜 준다. 그리고 지식의 진화가 행해지고 있듯이, 즉 한결 더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이 그릇되고 불필요한 지식을 추방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예술에 의한 진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결 더 선량하고 더 필요한 감정은 저속하고 불량하여 사람들의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을 대체한다. 예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예술은 이 임무를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쁜 것이 된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85쪽) -

‡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

팝이라는 영화와 엘이라는 영화 사이에 또는 상이한 가격 층의 잡지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차이란 사실 자체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장악하기 위한 차이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차이는 오히려 강조되고 선전된다. 대중에게는 각계각층을 위해 다양한 질(質)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양화(量化)의 법칙을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여러 유형의 인기 가요나 인기 배우, 멜로물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들도 겉보기에는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며 세부 사항들만이 대체 가능하다. …(중략)… ‘항상 동일한 것’이라는 관념은 또한 과거에 대한 관계도 주재한다. 후기 자유주의 단계에 비해 대중문화 단계에서 새로운 것은 ‘새로움’을 배제하는 것이다. 기계는 항상 같은 자리를 돌고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서 배제된다. 영화 제작자는 베스트셀러에 의해 보증된 안심할 수 있는 원고가 아닌 경우 모든 원고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바로 그 때문에 모두에게 친숙한 것이지만 아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드는 말인 ‘참신한 아이디어’, ‘신선한 무엇’, ‘경이스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들먹여진다.

-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86쪽) -

아도르노는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로서 대중문화는 미적 가치가 아닌 이윤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이윤을 창출한 작품을 모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표준화 과정에서 대중이 식상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차이와 개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이는 소비자를 분류하고 조직하여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이 아닌 사이버 개성이라고 주장하였다.

‡ 베블런의 과시 소비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 계급의 의무가 된다.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 소비이다. 이 두 방편은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92쪽) -

베블런은 유한계급이 명성을 획득하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려 하는데, 이러한 과시의 수단으로 과시 소비와 여가 활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엘리아데의 종교관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성스러운 것은 그가 자유를 획득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는 완전한 신비성을 잃어버릴 때에만 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좋은 싫든 간에 종교적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그의 선조가 만들어 낸 상황에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종교적 인간은 탈신성화 과정의 소산이다. 자연이 신의 작품인 우주의 점진적인 탈신성화 과정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인간은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엘리아데, “성과 속” (73쪽) -

엘리아데에 따르면 근대의 비종교인은 초월적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종교적 지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의사소통 행위의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의 행위를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에 맞출 수 있을 때에만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행위의 비강압적 조정과 합의를 통한 행위 갈등 해소의 여지가 커진다.
- 명제적 진리와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범의 올바름과 주관적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발언도 합리성의 중심 전제, 즉 근거가 제시되고 비판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98쪽) -

하버마스는 논증적 토론으로서의 담론에서 담론 참여자들이 명제적 진리와 규범의 올바름 그리고 주관적 진실성을 갖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주관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포퍼 ‘관용의 역설’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편협함을 가르치는 어떤 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고, 우리가 살인 혹은 유괴의 선동 혹은 노예 무역의 부흥을 범죄로 간주하듯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99쪽) -

포퍼는 무제한적인 관용이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용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도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이 함께 파괴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용적인 사회, 즉 열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허용되는 한계를 정해야 하며,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세 가지 확정 조항

○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이어야 한다.
 제2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란 영구 평화를 위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조항이다. ‘제1 확정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는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전쟁에 대한 결정이 군주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을 때 전쟁이 억지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체제가 바로 공화 정체라고 보았다. ‘제2 확정 조항’에서 핵심 개념은 국제법과 국제 연맹이다. 이는 평화를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를 명시해 평화의 항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칸트는 하나의 주권을 가진 세계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연맹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 확정 조항’에서 칸트는 세계 시민법이 보편적 우호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우호는 한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민으로부터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사람들이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그런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흠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가 세계 시민법이다. - 104쪽 -

‡ 갈통의 폭력 이론

-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폭력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그러한 폭력은 행위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5쪽) -

‡ 원조의 목적과 차단점에 대한 롤스의 입장

자유적 국내 사회에서 부자와 빈자 간의 간격은 상호성의 기준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그들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리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간격을 더 좁혀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만민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적 또는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을 가지게 된다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가 된다면 만민법은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목표, 즉 생활 수준 향상과 같은 목표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간의 물질적인 불평등을 더 축소시키려는 어떠한 요청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롤스, “만민법” (106쪽) -

† 2025학년도 수능특강

‡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 “아함경” (32쪽) -

‡ 레건의 동물 권리론

우리의 내재적 가치가 동물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에게는 이성이나 자율성, 또는 지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 하지만 당신이나 나의 내재적 가치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의 그것보다 크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삶의 주체인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당신이나 나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는 없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 동물할 것 없이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 레건, “동물의 권리에 대한 급진적 평등주의 사례 옹호” (번역 이슈...) (46쪽) -

‡ 밀의 ‘여성의 종속’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반을 차지 하는 여성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업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비열한 남성조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막는다면, 나아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만 독점적 특혜를 줄 요량으로 여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다면, 이에 공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 밀, “여성의 종속” (54쪽) -

‡ 퇴계가 논하는 부부간의 윤리

무릇 부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알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퇴계집 40권” (56쪽) -

‡ 순자의 직업관

• 예(禮)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 주고,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의 차등이 있게 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 옛 임금들은 사람들 사이의 분계를 마련하여 차등을 두었다. 그러므로 ... (중략) ... 어떤 이는 풍족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며, 어떤 이는 안락하고 어떤 이는 고생하게 하였다. 그것은 일부러 지나치게 편하고 화려하게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짊(仁)의 무늬를 밝히고 어짊의 질서에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순자, “순자” (62쪽) -

‡ 플라톤의 직업관

내 생각에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富)나 다수 또는 힘에 의해, 또는 이런 유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우쭐해져서는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속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또는 동일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그런 경우에 내 생각에도 그렇지만, 자네한테도 이들의 이 교환이나 참견이 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네. 그렇다면 세 부류인 이들 사이의 참견이나 상호 교환(기능의 바꿈)은 이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 될 걸세. - 플라톤, “국가” (63쪽) -

‡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지혜가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언고자 하는 바가 크므로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얇은 사람은 언고자 하는 바가 작아서 욕심이나 채우는 관리가 되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65쪽) -

‡ 니부어

• 이기적 충동이 사회적 충동에 의해 꺾이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충동 속으로 흡수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에 바치는 헌신성은 이타주의의 표현임과 동시에 변형된 이기주의의 표현이 된다. 이성은 이기심을 사회적 충동 전체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억제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같은 이성의 힘은 동시에 개인의 이기주의를 생동적인 능력의 전체 속에 있는 한 정당한 요소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72쪽) -

‡ 롤스의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 속에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무엇보다도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모험을 몹시 싫어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고 있다. - 롤스, “정의론” (75쪽) -

‡ 루소와 베카리아의 형벌론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하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이다. …(중략)… 형벌이 자주 행해지는 것은 항상 그 정부가 무력하거나 태만하다는 징조이다. 사람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해도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기 마련이다. 본을 보여 주기 위해 서라도 우리가 죽일 권리를 갖는 것은 위험인물이라고 확인된 자에 한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한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고문당하는 자의 비참한 비명 소리가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지른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 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7쪽) -

‡ 공자의 덕치 사상

내가 듣자 하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집을 소유한 백성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분배가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것을 근심한다.’ 했다. 분배가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먼 나라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덕(德)을 닦아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며 그들이 찾아오면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 “논어” (84쪽) -

‡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만약 사회 계약으로부터 본질적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중략)…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87쪽) -

‡ 밀의 자유론

자유와 권위의 투쟁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오래된 역사에, 특히 그리스, 로마, 영국의 역사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이 투쟁은 피지배자, 또는 그중의 어떤 계급과 국가 사이에서 벌어졌다. 즉, 자유란 정치적 지배자의 폭정에서의 보호를 뜻했다. …(중략)… 지배자의 억압적인 권위의 행사에 대해 어떤 경계심을 갖게 되어도 사람들은 지배자의 지배권에 감히 도전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배자의 권력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도 여겨졌다. …(중략)… 애국자들은 지배자가 그 공동체에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한이야말로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였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시도되었다. 첫째는 지배자로 하여금 이른바 정치적인 자유나 권리라는 일정한 특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였다. 그 경우 지배자가 그것을 침해 하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이에 대한 특별한 반항이나 일반적인 반란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둘째는 더욱 현대적인 방식인 헌법적 견제의 확립, 즉 더욱 중요한 지배권의 행사에 대해 공동체의 동의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나 그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집단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삼게 하는 것이였다. - 밀, “자유론” (87쪽) -

‡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론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악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 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소로, “시민 불복종” (89쪽) -

‡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레건, “동물의 권리” (117쪽) -

‡ 맹자의 자연관

군자는 만물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 “맹자” (120쪽) -

‡ 플라톤의 예술관

시가(詩歌)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리듬과 선법(화음)은 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 들어 우아함을 대동함으로써 혼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이를 옹계 교육을 받는다면 우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반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일세. 또 시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은 이는 빠져서 없는 것들과 훌륭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것들 또는 훌륭하게 자라지 못한 것들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알아볼 것이네. 그들은 옹계 싫어할 줄 알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기뻐하여 혼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이것들에서 교육을 받아 스스로 훌륭하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 논거도 알기 전에 추한 것은 비난하고 미워하기를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인지라 그 논거를 접하게 되면 그 친근성덕에 그걸 알아보고서는 제일 반길 것이기 때문에 말일세.

- 플라톤, “국가” (131쪽) -

‡ 불교의 음식 윤리

- 우리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혜롭게 속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리라.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淸淨梵行)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 “맛지마 니까야” -

- 공양할 때는 소리 내지 말며, 발우나 수저를 집고 놓을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며, 맛있고 맛없는 음식을 가려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며, 묵묵히 말하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며, 밥을 바탕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받는 것이 다만 몸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여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알아야 하며, 반야심경을 염(念)하되, 주는 이와 받는 이, 주고 받는 물건이 청정함을 관(觀)하여 도용(道用)을 어기지 말지니라.

- 지눌,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141쪽) -

‡ 엘리아데의 종교론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성스러운 것의 현현이 성현(聖顯)이다. 성현은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종교의 역사는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현, 즉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 성현(예컨대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에서 높은 수준의 성현(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동일한 신비스러운 사건에 직면한다. 즉,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 이 자연적인 ‘속된’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45쪽) -

‡ 싱어의 해외 원조론

의심할 여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 바로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의 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 친화성을 고려해 보자. 유럽계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전에 가난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167쪽) -

‡ 2025학년도 수능완성

‡ 메타 윤리학의 탐구 과제

- 메타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제시하는 규범 윤리학의 본성과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 그리고 도덕 개념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논리를 다루는 철학적 윤리학의 분야이다. 다시 말해 ‘옳음’ 혹은 ‘좋음’이라는 속성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즉 책상이나 책상을 이루는 분자들과 동일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옳음’ 혹은 ‘좋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등장하는 판단의 진리치나 정당화가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처음 읽는 윤리학』 -
- 일반적으로 메타 윤리학의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덕적 신념이 참이나 거짓이냐를 보일 수 있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과제는 의미론적인 문제이고, 둘째 과제는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이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4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옳곧게 성공한다.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일종의 중용이다. …(중략)… 그런데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이 다 중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나쁨과 묶여져서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술, 파렴치, 시기와 같은 감정, 그리고 행위의 경우 절도, 살인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그것들의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나쁘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5쪽) -

‡ 노자의 이상적 인간

-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밝을 수 없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과시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자만하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다.
- 굽으면 온전할 수 있고, 구부리면 펴 수 있고, 움푹하면 채울 수 있고, 오래되면 새로울 수 있고, 적으면 얻을 수 있고, 많으면 미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이 원칙을 준수하여 세상에 모범이 된다. 그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밝을 수 있다.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니 드러날 수 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공이 있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기에 오래갈 수 있다. 그는 남들과 다투지 않으니 천하에 그와 대적할 상대가 없다. - 노자, 『도덕경』 (10쪽) -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쾌락 이외의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나, 또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아마도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만족해하는 쾌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 …(중략)…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 밀, 『공리주의』 (11쪽) -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서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발휘하는 것도 행복의 한 원천이 된다. 반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런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 밀, 『공리주의』 (33쪽) -

‡ 길리건의 배려 윤리

- 여성들이 인정하는 도덕 명령은 보살핌의 명령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문제들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해서 남성들이 받아들이는 도덕 명령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과 자아실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남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 우리가 남성들의 삶과는 다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사회적 경험과 그 해석에 하나의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버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석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간 경험에 대한 더 발전된 이해를 할 수 있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34쪽) -

‡ 순자의 직업관

-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분별[分]이 없다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곤궁해진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고, 분별이 있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과 이익이 된다. 옛 임금들은 사람들 사이의 분별을 마련하여 차등을 두었다.
-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금과 재상과 신하들과 여러 관리들은 각각 그의 직분으로 들은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들어 보지 않은 직분 이외의 일은 들으려 애쓰지 않는다. 각각 그의 직분으로 본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본 일이 없는 직분 이외의 일은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이 들은 일들과 본 일들이 진실로 그들 직분에 들어맞기 때문에 비록 으스스하고 외진 곳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직분을 공경히 지키고 제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 모두가 그들의 임금에게 감화를 받는다. 이것이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징조이다. - 순자, 『순자』 (39쪽) -

‡ 순자의 직업관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중략)… 현대의 기술 속에 성(盛)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채굴되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게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중략)…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을 석탄과 광석을 캐내기 위해 도발적으로 굴착한다.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농부들이 예전에 경작하던 밭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경작은 키우고 돌보는 것이었다.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생명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토 경작은 자연을 닦아 세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경작 방법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 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우리늬를, 우리늬는—파괴를 위해서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든—원자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62쪽) -

‡ 테일러의 '생명체에 대한 네 가지 의무'

불침해(악행 금지의 의무)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신의(성실)의 의무	총사냥, 낚시, 덫사냥 등의 행위로 야생 동물을 속이는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불간섭의 의무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통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77쪽) -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존재의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부터 따라 나오는 네 가지 의무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네 가지 의무에도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다. 그는 불침해의 의무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나머지 의무 간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중요한 이익이 영속적인 피해 없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는 불간섭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의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철학적 가치이다. …(중략)…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78쪽) -

‡ 롤스의 원조론

원조 의무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를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 롤스, 『만민법』 (106쪽) -

‡ [附] 니부어

개개의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들은 본성상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심을 갖고 있다. …(중략)…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 2014학년도 수능특강 13쪽 -

우리의 현대 문화는 인간관계 안에 있는 집단적 이기심의 힘과 범위와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에 의해서 한 집단 안에서의 개인 간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일은,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 간의 관계일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관계들은 적어도 각 집단이 그들의 상대적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도덕적 평가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있는 힘의 비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보다 순수한 도덕적, 합리적 요소들과 구별되는 강제적 요소들이 결코 분명하게 구별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4학년도 수능완성 10쪽)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나타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는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 2015학년도 수능특강 11쪽 -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moral)이다. …(중략)…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제시문은 라인홀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내용 일부이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이 지닌 힘이 비해 집단의 비도덕적 특성이 지닌 힘이 영향력 차원에서 훨씬 더 크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함께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015학년도 수능완성 8쪽 -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성이나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개인의 그러한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의 전체 구조가 잘못되었는데, 개인에게만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개인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잘못된 사회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 2016학년도 수능특강 11쪽 -

탐욕, 권력에 대한 의지, 그 밖의 갖가지 이기적 욕구 등과 같은 자연적인 충동은 이성에게 의해 결코 완벽하게 제어되거나 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 철학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충동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에서 자연을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적 전략들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강제력, 이기적 욕구, 갈등 등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면, 영구적인 분쟁과 영원한 독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구원의 수단인 것이 내일은 예측의 쇄사슬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중략)'...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6학년도 수능완성 10쪽)

인간 사회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자연적 혹은 문화적 산물들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 강제력의 강화와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정의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략)'... 개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들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중략)'...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교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7학년도 수능특강 118쪽) -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으므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하여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도덕주의자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둔 사회 분석과 예측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매우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들은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7학년도 수능완성 80쪽)

모든 인간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 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중략)'... 개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들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중략)'...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교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8학년도 수능특강 119쪽) -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

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으므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 짐작해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하여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 (중략)...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8학년도 수능완성 77쪽) -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9학년도 수능특강 119쪽) -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들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아마도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9학년도 수능완성 77쪽) -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타인의 이익도 존중할 줄 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 나갈 수 있고 이기주의적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차원과 비교해 볼 때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이처럼 집단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연적 충동들에 버금갈 만한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개인들의 충동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적 충동 때문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20학년도 수능특강 114쪽) -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들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아마도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20학년도 수능완성 67쪽) -

-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21학년도 수능특강 76쪽) -

- 이기적 충동이 사회적 충동에 의해 꺾이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충동 속으로 흡수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에 바치는 헌신성은 이타주의의 표현임과 동시에 변형된 이기주의의 표현이 된다. 이성은 이기심을 사회적 충동 전체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억제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같은 이성의 힘은 동시에 개인의 이기주의를 생동적인 능력의 전체 속에 있는 한 정당한 요소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상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25학년도 수능특강 72쪽) -

- 오늘날의 문화는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과 범위, 그리고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을 통해 관계를 확립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 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한 사회적 정책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승인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실용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명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위험한 정치적 도구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奉事)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도덕적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26학년도 수능특강 70쪽) -

† 2026학년도 수능특강

‡ 기술 윤리학의 탐구 과제

개인이 지닌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여러 다른 사회와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을 탐구해 왔다.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편이상 현실적 도덕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술 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술 윤리학은 현실적 내지 이상적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쉽게 구별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7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도덕적인(품성적인) 덕이 정확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중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념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예를 들어 공포나 분노 쾌락이나 고통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도 좋은 것이 못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마땅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동기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중간이고 동시에 최선이다. 이것이 곧 덕의 특징이다. 덕은 중용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쪽) -

‡ 토론의 중요성을 역설한 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 밀, 『자유론』 (10쪽) -

‡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강조한 이이

지금은 어려서부터 손쉬운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몸을 닦아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행동이 어긋나게 되어 공부를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하니 결코 성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현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는 정좌(靜坐)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아홉 가지 모습인 구용(九容)으로 몸가짐을 가다듬게 했으니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힘을 써야 하는 바입니다.

- 이이, 『성학집요』 (10쪽) -

‡ 유교의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사회 구현

옛날에 착한 본성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집안을 바로잡았으며, 자기 집안을 바로잡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닦았고,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앎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였다. 자신의 앎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밝히는 데 있다.

- 『대학』 (17쪽) -

‡ 불교의 중도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여래는 중도(中道)를 완전히 깨달았다.

- 『초전법륜경』 (17쪽) -

‡ 장자의 제물론

참된 도(道)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된다. 한쪽에서의 분산은 다른 쪽에서의 완성이며, 한쪽에서의 완성은 다른 쪽에서의 파괴이다. 모든 사물은 완성이건 파괴이건 다 같이 하나이다. 다만 도에 다다른 자만이 다 같이 하나임을 깨달아,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을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 맡겨 둔다. 모든 것을 그저 자연에 맡길 뿐 그러면서도 그런 따위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을 도라고 한다.

- 『장자』 (19쪽) -

‡ 아퀴나스의 자연법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면서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20쪽) -

‡ 칸트의 선의지

이 세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유용성이나 무익함이나 하는 것은 선의지가 지닌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20쪽) -

‡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 고통이나 쾌락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근거로 삼아 행위를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쾌락의 가치의 총량과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하여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어떤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는 그 각자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다음 일곱 가지 여건에 따라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질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 그것의 지속성, 그것의 확실성, 그것의 근접성, 그것의 생산성, 그것의 순수성, 그것의 범위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더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21쪽) -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의 주어진 사실과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것은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 덕은 실천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덕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고통, 위험 유혹, 고민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선에 관한 탐구에서 우리를 격려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22쪽) -

‡ 장자와 석가모니의 죽음관

- 삶과 죽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등의 관계와 같이 모든 사물은 서로 의존한다. 성인(聖人)은 이것이나 저것이나에 속박됨 없이 생성 변화하는 자연에 순응할 뿐이다.

- 『장자』 -

-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으니. 정신은 지은 죄에 도로 들어가 여러 고통을 겪고 지나는가. 이제는 마땅히 여러 고통을 없애고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없애며 영원히 열반(涅槃)을 얻게 하리라. - 『아함경』 (30쪽) -

‡ 플라톤의 죽음관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풀려나고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가장 덜 두려워할 것이다. 죽음 이후에야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사유할 때 시각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감각을 사유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사유만으로 개별 대상에 접근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 플라톤, 『파이돈』 (31쪽) -

‡ 낙태에 대한 싱어의 입장

낙태 반대론자들의 오류는 태아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種)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명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호모 사피엔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동일한 생명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의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태아를 동물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태아의 지적 능력은 소나 돼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과 달리 도살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의식을 갖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왜 자의식을 갖춘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또 아직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존재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 싱어, 『더 나은 세상』 (31쪽) -

‡ 자살에 대한 칸트의 입장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파기한 것(자살)은, 윤리성이 목적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성 자체를 그 실존의 면에서 말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의 임의의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격에서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32쪽) -

‡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하는 벤담의 사상

어떤 특징으로 인간과 다른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혹은 담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에 비해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43쪽) -

‡ 프로트의 사랑의 기술

인간과의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하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자기 파괴,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 프로트, 『사랑의 기술』 (51쪽) -

‡ 밀의 여성의 종속과 보부아르의 제2의 성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업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비열한 남성조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막는다면, 나아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만 독점적 특혜를 줄 요량으로 여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다면, 이에 공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 밀, 『여성의 종속』 -

여자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이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로서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 보부아르, 『제2의 성』 (52쪽) -

‡ 순자의 직업관

덕을 논하여 서열을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의 직책을 주며, 각자 사람마다 그 일을 수행하여 각각 그 마땅한 데를 얻게 하여 상질 현자는 삼공이 되도록 하고, 버금가는 현자는 제후가 되도록 하며, 현자는 사대부가 되도록 함이 바로 끌어 쓰는 방법이다. …(중략)… 그러므로 천자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에 편안히 즐기려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 다 같은 것이다. - 순자, 『순자』 (60쪽) -

‡ 플라톤의 직업관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서로 달라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하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 적기에 하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이다.
- 장인이거나 상인이 재화와 같은 것의 힘을 빌려 방위자가 되거나 방위자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세 계층의 사람이 서로 참견하거나 일을 바꾸는 것은 이 나라에 해악이자 악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플라톤, 『국가』 (61쪽) -

‡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자애롭다. 자애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해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용(節用)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63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또한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으로서, 수학자들은 이러한 비례를 기하학적 비례라고 부른다.
- 교정적 정의는 자발적인 교섭과 비자발적인 교섭 둘 다에서 발생한다.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며, 이때의 동등함은 산술적 비례에 따르는 것이다. 법은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71쪽) -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 대상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르코자 한다. - 롤스, 『정의론』 (73쪽) -

‡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정치적 평등주의의 목표는 지배가 없는 사회 즉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이다. 이것은 다양한 차이를 철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배의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서로 평등하다. -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73쪽) -

‡ 처벌에 대한 벤담의 입장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처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중략)… 막아야 할 폐해가 어떤 것이든 간에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막아 내야 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 사형제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관점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이다. 목적을 바라는 자는 얼마간의 위험, 얼마간의 손해를 생각한다. 남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중략)…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그 범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중략)… 죄인을 재판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사회 계약을 맺으며, 따라서 이제 그는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선고이다. - 루소, 『사회계약론』 (75쪽) -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범죄의 진정한 척도가 범죄자의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적 효용, 즉 공리가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중략)…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중략)… 사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5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으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고 완전한 공동체이며,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잠재적 충동이 있다.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중략)… 국가는 분명 자연의 산물이고 개인에 우선한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 공자의 덕치 사상

내가 듣자 하니 ‘나라를 경영하는[有] 자와 집을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분배가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것을 근심한다.’ 했다. 분배가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먼 나라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덕(文德)을 닦아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며 그들이 찾아오면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 『논어』 (84쪽) -

‡ 홉스의 국가론

어떤 강제력, 즉 코먼웰스(국가)가 없는 곳에는 소유권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중략)…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 홉스, 『리바이어던』 (84쪽) -

‡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람마다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을 대신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 …(중략)… 공공의 행복에 따라서 국가의 여러 힘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 의지뿐이다.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주권은 결코 양도할 수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국가의 이익을 지향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85쪽) -

‡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든지, 그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정당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 밀, 『자유론』 (85쪽) -

‡ 시민 불복종 이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중략)… 노예 제도 폐지론자는 몸으로나 재산으로나 매사추세츠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 - 소로,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 이론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략)…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중략)…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롤스, 『정의론』 (87쪽) -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격률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하라.” …(중략)… “너의 이웃 사람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 등등 이 모든 격률에서 행위자와 그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중략)…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

‡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

감각적 존재들은 의식을 가지는 한. 그것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익, 가능한 한 많은 쾌락과 적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득을 갖는다. 감각은 한 존재를 이익 평등 고려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그 존재가 계속 살고자 하는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싱어, 『실천윤리학』 -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고통스러운 유전자 조작은 당연히 재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도 않은 고기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이런 기술은 비도덕적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절대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제 결정이나 도덕적 선택은 그 결과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아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 이용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의 목표가 중대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싱어, 『동물해방』 (115쪽) -

‡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기체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들의 '선'은 인간의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증진'된다. 반면에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그들 자체의 생존, 건강, 안녕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

‡ 플라톤의 도덕주의

- 좋은 말씨와 조화로우며, 우아함(고상함, 좋은 모양)과 좋은 리듬은 좋은 성격(순진성, 단순함)을 따르는데 이는 어리석음을 좋게 부를 경우의 순진성(단순함)이 아니라 성격(성품)을 진정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갖춰 갖게 된 사고일세. ... (중략) ... 풀사나움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에, 그 반대의 것들은 그 반대되는 것, 즉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을 닮았으며 또한 그걸 모방한 것일세.
- 젊은이들이 마치 건강에 좋은 곳에서 거주함으로써 그렇게 되듯, 모든 것에서 덕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작품에서 뭔가가, 마치 좋은 곳에서 건강을 실어다 주는 산들바람처럼, 그들의 시각과 청각에 부딪쳐 오게 되어, 어릴 적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릴 걸세. - 플라톤, 『국가』 (128쪽) -

‡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

독점하에서의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독점으로 만들어지는 대중문화의 골격과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중문화의 조정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가 단순히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기업이라고 부르며, 사장의 수입이 공개 되면 그로써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아도르노 외, 『계몽의 변증법』 -

‡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기능적 사용 및 소유 등이 아니다.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 과시의 기능이 아니다.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서, 끊임없이 보내고 받고 들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서 정의된다.

-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140쪽) -

‡ 엘리아데의 성과 속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다. 그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42쪽) -

‡ 쾨링의 종교 간 대화

종교 간의 대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원은 모든 영역에 걸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개방된 자세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영역에 따라 연대적인 인식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 준다. ... (중략) ... 그렇게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고 하나의 계획으로 순응시키는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다시 한 번 더 종합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 간의 세계 윤리를 배제하고서는 어떠한 인간의 공생과 공존도 불가능하다.
- 종교 간의 평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간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 종교 간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간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 쾨링, 『세계 윤리 구상』 (142쪽) -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나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적으로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이때 매번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주관적 합의에 따라 평가된다. 명시적으로 언어적인 협의 과정의 경우 행위자들은 그 무엇에 대해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각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주장,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을 제기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151쪽) -

‡ 노직, 싱어, 롤스의 해외 원조론

국민자를 돕기 위한 최소의 사회적 대책을 의무화한 나라를 생각해 보자. 어느 누구도 이 계획에 대한 불참을 선택할 수 없다. 어떤 생활 수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기여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이 나라로부터의 이민이 허락된다면, 누구라도 의무적인 사회봉사 제도는 없으나, 다른 면에서는 동일한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떠나는 유일한 동기는 사회봉사 제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유럽계의 사람들은 빈곤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전에 빈곤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정부가 기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반영한다. 내가 기술하고 있는 질서 정연한 정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희망컨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롤스, 『만민법』 (162쪽) -

‡ 2026학년도 수능완성

‡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 도덕 행위자는 도덕적 표준 또는 규칙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하나의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이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타당하다는 말은, 어떤 도덕 행위자의 성질과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표준과 규칙이 정연한 체계를 이룬 것을 흔히 ‘규범 윤리적 체계’라고 부르며,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규범 윤리학이라고 한다.
 -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메타 윤리학의 문제가 된다. 이런 단어들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메타 윤리학의 과제이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4쪽) -

‡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에,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올곧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탁월성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5쪽) -

‡ 노자의 무위지치

- 성인(聖人)은 억지로 도모하지 않고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나고 자람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하지 않고, 만물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뜻한 바를 이루어도 안주하지 않기에 버림받을 일 또한 없다.
 - 성인이 말했다. 내가 무위하면 백성은 스스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면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부러 행하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된다.
- 노자, 『도덕경』 (10쪽) -

‡ 칸트의 의무론

행위의 모든 도덕적 가치의 본질적인 면은 도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의지 규정이 비록 도덕 법칙을 좇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감정을 매개로 해서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법칙을 위해서(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적법성(합법성)은 포함하겠지만 도덕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무릇 동기(動機)라는 말이 그의 이성인 본성상 이미 객관적 법칙을 반드시 좇지는 않는 어떤 존재자의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뜻한다면, 첫째로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즉 신의 의지에는 전혀 아무런 동기도 부가할 수 없으며, 그러나 인간 의지의 동기는 결코 도덕 법칙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고, 행위의 객관적 규정 근거는 항상 그리고 오로지 동시에 그것의 주관적으로 충분한 규정 근거이어야 한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11쪽) -

‡ 칸트의 의무론

-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세상일은 모두 상대적이므로 성인(聖人)은 그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 옛날의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無心)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태어난 시초를 모르고, 그 죽은 뒤의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죽으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

- 장자, 『장자』 (18쪽) -

‡ 죽음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동반하지 않은 채로 홀로 순수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네. 영혼은 이승에서 살아갈 때 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피해서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서 늘 죽음을 연구하고 죽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가? 사실 철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꺼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연구하는 일 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지. 철학을 한다는 일이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그러한 순수한 상태에 놓인다면, 자기 자신을 닮은 곳,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신적이며 죽음이 없고 지혜로운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당도해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어리석고 우매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야만적이고 사나운 욕망을 비롯해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저지르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되지 않겠는가?

- 플라톤, 『파이돈』 (19쪽) -

‡ 칸트에 대한 레건의 비판

칸트가 “동물은 자기의식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수이다. 앞에서 우리는 동물이 자기의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논의를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개, 그리고 개와 유사한 동물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어떤 것을 빠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 빠에 대한 (심지어 우리가 갖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b) 어떤 상황에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것은 빠이다.”라고 판단할 수(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동물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다. …(중략)…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동물을 직접적인 도덕적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 레건, 『동물권 옹호』 (26쪽) -

‡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共棲的)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믿고 있다. …(중략)…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 프롬, 『사랑의 기술』 (33쪽) -

‡ 맹자의 향산향심론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지만 변함없는 마음(恒心)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변함없는 마음이 없어진다. 진실로 변함없는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간사한 짓을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 빠지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충분히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충분히 기를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항상 배부르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러한 뒤에 그들을 인도하여 선(善)으로 가게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 맹자, 『맹자』 (39쪽) -

‡ 정약용의 청렴론

-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없다.
-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賈)다. 그런 까닭에 크게 욕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어 떠들썩할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간 곳은 산림(山林)과 천석(泉石)도 다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40쪽) -

‡ 밀의 자유론

- 자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방어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밀, 『자유론』 (55쪽) -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앞에 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롤스, 『정의론』 (56쪽) -

‡ 자연과 기술에 대한 베이컨의 입장

인간의 야망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세력을 자기 나라 안에서 확대하려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하등의 천박한 야망이다. 다음은 자기 나라의 권력과 지배권을 인류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품위는 좀 있지만 여전히 탐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야망이다. 그런데 인류 자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자연 전체에 대해 수립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야망은 앞의 두 가지 야망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하고 고귀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 베이컨, 『신기관』 (62쪽) -

‡ 정보 사유론의 정당화 근거로서의 로크의 노동 이론

재산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정당화 논거로서 자연권은 한 사람이 그가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이 자연적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권 논의는 로크의 재산에 대한 노동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은 그의 노동을 생산품에 혼합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한다. 로크는 노동을 신체의 확장으로 보아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의 신체를 소유할 수 없듯이, 신체의 확장인 노동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어떤 사물을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되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노예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소프트웨어 소유권에 적용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였으므로 그 소프트웨어는 온당하게 그 개발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추병완, 『정보 윤리 교육론』 (70쪽) -

‡ 테일러와 레오폴드에 대한 수능완성의 해석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해의 의무에는 고유의 선을 지닌 자연환경 속 존재들, 예를 들어 유기체, 중-개체군, 생물 군집 등의 선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는 물론, 유기체를 죽이지 않고 중-개체군이나 생물 군집을 파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 불간섭의 의무는 야생 생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할 의무이다. 여기서 자유란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생 상태로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생물적으로, 생태적으로 조직된 야생 유기체 집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 77쪽 -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가 인간의 이해와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생명 공동체를 오직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생명 공동체의 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르다고 보았다.

- 78쪽 -

‡ 엘리아데의 종교관

성스러운 것은 참으로 ‘자연적인’ 여러 실재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의 실재로서 현현한다.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성스러운 것의 현현(顯現)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이 말은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종교의 역사는 많은 성현, 즉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성현에서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 엘리아데, 『성과 속』 -

‡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논증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이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비판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자기와 타인의 오류로부터 배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용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관용에 대한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증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궁극적으로 합리주의는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합리주의의 채택은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공통 수단, 이성의 공통 언어가 있음을 함축한다.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99쪽) -

포퍼는 우리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관용의 정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호 시인함으로써 독선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언어의 올바른 사용과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갈통의 평화론

- 폭력은 인간에게 기본적 필요, 더 일반적으로는 생명에 대해서 가해지는 피할 수 있는 상해 행위이다. 즉 잠재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로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의 실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폭력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그러한 폭력은 행위자로 하여금 직접적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폭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5쪽) -

‡ 싱어의 원조의 의무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기부 뒤에 숨겨진 동기의 순수성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자선 단체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매일 죽어 가는 2만 5천 명의 아이 중 대다수를 살릴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침묵하는 기부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기부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싱어, 『더 나은 세상』 (106쪽) -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싱어는 세계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위야말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이러한 생각을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몰래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은 기부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